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 조성을 위한 연구(I)
Humanistic Research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y(I)

오성훈 Oh, Sung Hoon
성은영 Seong, Eun Young

(a u r 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

itute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조성을 위한 연구(I)
Humanistic Research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y(I)

지은이: 오성훈, 성은영

펴낸이: 온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08년 9월 16일, 발행: 2008년 2월 29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3216-00-4

발간물 번호: AURI-기본-2007-1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 조성을 위한 연구(I)
Humanistic Research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y(I)

(a u r i

연구진

연구책임 | 오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진 | 성은영 •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 운영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서수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조준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강내희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강인호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구요약

건축과 도시공간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기존의 건축적 논의만으로는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사회적 영역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정책의 목표, 수단, 절차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각각 철학적인 검토를 거쳐 사회공동체의 합의와 일종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일부 집단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비뚤어진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기초를 조성하는 작업은 진지한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지한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인문학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문학 현황을 살펴보고, 건축,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인문학적 접근도 검토하였다. 인문학에 대해서는 인문학자의 위기, 인문학 자체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개별 인문학자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학문체계의 구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공 또는 국가 차원의 학문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총체적인 예산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책연구소가 인문학적 연구에 대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학술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문적 토양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인문학적 접근의 경우, 개별적인 철학적 개념을 연구의 소재로 차용한 경우가 주로 많았으며, 실질적인 인문학적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인문학과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0명의 인문학자들과 개별 대담 및 집담회를 가졌으며, 이들이 제안한 연구주제를 수록하였다. 연구제안의 주제를 살펴보면, 기억과 공간에 대한 검토, 공간 속에서의 생산한 이야기 내용, 건축적 담론에서 나타난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비평, 현대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적 비평, 공간

에 대한 철학적 개념의 적용 및 검토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주제들은 범위와 분야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과 인문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는 의
미가 있다. 이 연구들은 개별 연구주제의 의의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의 기초조성을 위한 후
속 작업들의 초석으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2008년에 4회에 걸쳐 인문학 포럼을 주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인문학자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학자들 간의 소통을 모
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08년 포럼이 모두 개최되면 각 포럼의 발제문들을 보
완·출판하여, 연구소와 포럼에 참여한 학자들의 노력의 성과물을 널리 공유할 것이다.

주제어: 건축도시공간, 담론, 인문학, 학제간 소통

차례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기대효과	7
II. 우리나라의 인문학적 토양	10
1. 인문학의 범위와 현황	10
1) 인문학의 개념	10
2) 인문학 관련 학회 현황	12
3) 인문학 관련 대학부설 연구소 현황	13
4) 인문사회 분야 연구활동 현황	16
2. 인문학 위기와 인문정책	21
III. 건축도시공간과 인문학	30
1.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인문학적 한계	30
2. 건축도시공간 연구 분야 인문학 연구현황	31
1)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인문학 연구의 분류현황	31
2) 건축도시공간 분야 인문학 관련 연구실적	33

3) 건축도시공간 분야 인문학 관련 연구경향	34
4) 건축도시공간 분야 외부에서의 인문학적 접근	36
3.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인문학 연구의 필요성	36

IV. 공간정책을 위한 인문학의 제언 40

1. 인문학자와의 대화	40
2. 공간에 대한 인문학의 제언	44
1) 기억과 공간: 콜로니얼 경성에서 포스트콜로니얼 서울로	44
2) 도시공간에서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과 미적 체험	47
3) 현대건축의 담론에 나타난 공간개념의 비판적 검토	49
4) 건축에서 기능주의와 기계주의	50
5) 문화환경 속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재구성	52
6) 도시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보자	54
7)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전: 풍경	55
8) 공간과 권력: 푸코의 ‘또 다른 공간들’	58

V. 결론 62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63

• 참고문헌	66
• 부록 1. AURI 인문학포럼 계획안	71
• 부록 2. 인문학 관련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목록(2007년)	75

표 차례

〈표 1〉 연도별 설립현황	12
〈표 2〉 대학부설 연구소의 분야별 분포(2007년 기준)	14
〈표 3〉 대학부설 연구소의 지역별 분포(2007년 기준)	14
〈표 4〉 연구원수의 규모에 따른 대학부설 연구소 분포	15
〈표 5〉 1986-2001년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분야별 분포	17
〈표 6〉 인문사회분야 연구활동인력 현황	18
〈표 7〉 분야별 연구인력 여성비율(2007년 기준)	19
〈표 8〉 대학의 대분류별 전공단위별 졸업자 비율 전망	19
〈표 9〉 연구인력 분야별 연령대 구성	20
〈표 10〉 연구인력의 여성비율(2007년 기준)	21
〈표 11〉 인문학계 일반현황	23
〈표 12〉 각국의 인문정책 추진기구 현황	25
〈표 13〉 AURIC의 연구분야 분류	32
〈표 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 분야 분류	32
〈표 15〉 실내건축 분야의 연구 분야 분류	33
〈표 16〉 건축·도시 계획 및 설계 분야 주요 논문집의 인문학관련 연구실적	34

그림 차례

〈그림 1〉 설립연도별, 분야별 학회수	12
〈그림 2〉 분야별 학회의 규모 분포(2007년 기준)	13
〈그림 3〉 연구원 규모별 대학부설 연구소 현황(2007년 기준)	16
〈그림 4〉 연구인력 직책별 구성비(2007년 말 기준)	18
〈그림 5〉 연구인력 분야별 연령대 구성비율	2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건축과 도시공간에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기술로서의 건축술, 공학으로서의 도시설계라면 인문학은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주어진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적 학문으로서의 건축, 도시설계는 명확하고 간결하다. 그러나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문제를 누가 정의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인 영역을 한참 넘어선다. 구조역학문제를 풀 때처럼 주어진 조건과 문제는 없다. 우리의 공간에 주어진 조건과 문제 자체가 의심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일정한 패러다임이 통용되는 시대에는 인문학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이미 하나의 시대적 관점으로 일반체계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언가 문제를 가져올 때, 우리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부터 실상 해 왔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반성적 사유를 시대로부터 강권받는 것이다. 인문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어쩌면 현실의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라고 손쉬운 대안들을 내놓기 전에 그 문제를 인식하는 기반부터 점검해야 하며, 손쉬운 대안일지라도 판단과 실행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철학적 기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하나의 영토에 대한 통치체계로부터 미시적 일상공간의 구조를 다루는 일까지 한 사회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축적에 따라 하나의 공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공간체계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구축되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에

게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부여한다.

17세기 말 유럽의 도시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 도시에는 엄격한 공간적 분할이라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고, 공간의 책임자가 정해지고 감시가 이루어졌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이동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행위가 된다. 전염병이란 명칭을 가진 사회적 위기에는 이러한 공간적 질서가 대응된다. 이 질서는 혼란을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개인의 욕체를 규제한다.¹⁾ 공간에 대한 공공의 계획은 이러한 규율중심적인 권력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간정책은 이러한 공간체계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대한 절차와 수단, 목표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닥쳐온 페스트를 대신할 사회적 혼란은 무엇인가? 사회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질병, 교통혼잡이나 주거의 부족, 토지가격의 상승, 경제적 비효율, 또는 불평등, 아름답지 않은, 황폐화된 공간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공공의 계획, 공간정책 속에서 대응된다.

특히 공간에 대한 논의가 양적인 자원배분을 넘어서서, 개별적인 건축의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사적이며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건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개별 건축의 존재 이유, 명분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우르는 공간정책의 정책목표, 정책적 수단, 정책절차가 가지는 철학적 의미에 대한 검증으로서의 논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디자이너 하라 켄야의 구분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공간의 설계는 아티스트의 영역에서 디자인의 영역으로 재진입하게 된다.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라 켄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트는 개인이 사회를 마주보는 개인적인 의사표명으로 발생의 근원이 매우 사적인 데 있다. 따라서 아티스트 자신만이 그 근원을 파악하고 있다. (중략) 한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그 동기가 개인의 자기표출 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쪽에 발단이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디자인의 본질이 있다. 문제의 발단을 사회에 두기 때문에 그 계획이나 과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디자이너와 같은 시점에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정신이 태어나고, 그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감동이 바로 디자인의 매력이다.”²⁾

1) 미셸 푸코(1975), “감시와 처벌”, 나남, pp.289~294

2) 하라 켄야, “디자인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2003, pp.38~39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건축가, 도시설계가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문적 가치관에 대한 솔직한 언표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규범적 언표들은 사회공동체의 검토와 비평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사회공동체의 검토와 비평에 부합하면 된다는 손쉬운 전제조건이 도출된다.

그런데 하나의 설계안이 기존의 사회공동체의 철학과 가치에 부응하는 형태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일면적이며 도구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그것은 주어진 테제에 대한 종속적이며 기술적인 대응을 의미할 뿐이다. 여기에 만족하는 설계안은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엽적으로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공동체의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김우창은 공동체의 그릇으로서의 도시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도시는 무엇보다도 삶의 공간이다. 도시의 전체성은 그곳에서 영위되는 삶을 포함한다. (중략)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수도의 중앙대로의 양편에 좋은 건물들의 그림들을 세워 건설공사를 대신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략) 우리의 성급한 도시건설계획, 미화계획의 발상이 이와 비슷해지는 것을 자주 본다.”³⁾ 미학적인 접근의 극단에서 우리는 건축가, 도시설계가들의 이상향의 허구성을 만날 수 있다. 차우세스쿠의 오류가 가지는 극단적 편향은 우리의 도시공간에 일상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서울의 가옥 갱신주기는 서구도시보다 훨씬 짧다. 텔리상은 도시가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한국인 대다수의 ‘무심함’을 지적한다.(Delissen, 1993) (중략) 분명 서울은 20세기 유럽사회에서 발전된 가옥의 이데올로기와는 상충되는 관점을 갖는다.(Choay, 1992) (중략) 확실히 서울은 지리학에 저항하는 도시이다.”⁴⁾ 외국인 발레리 줄레조의 언급은 우리의 도시에 대한 담론적 평가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전문가의 평가와 분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인문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에는 최종적인 답안은 없으며, 다만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 움직여 가는 논의가 있을 뿐이다. 하나의 설계안은 여러 가치의 스펙트럼상의 어딘가에 위치하지만, 주어진 테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생각, 아이디어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공간정책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재고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임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공간에 대한 순수한 이념은 사회공동체의 이념의 문제로 전화된다. 공간의 생산과 이용, 배분, 배치에 대한 다양한 관념과 기획은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 속에서 진행되지만, 그러한

3) 김우창, “도시의 미학, 공간의 미학”, 비평, 2007 겨울, 생각의 나무, pp.247~248

4)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pp.58~59

물음에 대한 답변을 끊임없이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편향으로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은 삶의 총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의식과 해법만으로는 인간에게 아름답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나, 이는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오늘날 설계의 문제는 그 복잡성이 증대하여 풀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설계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 개인의 통합적인 능력에만 달려 있다. 설계는 순수하게 직관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한 개인의 미적인 개성만으로 복잡한 정보들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적합성(Fitness)이라는 것은 맥락과 형태의 상호적응성을 의미한다.”⁵⁾

복잡성이 증가한 현대사회의 건축과 도시는 종교적 권위나 왕권, 또는 귀족이나 군인과 같이 하나의 질서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건축가, 도시설계가는 거리로 내몰린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가처럼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계급으로서 예술가로서의 특권의식마저 향유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질서를 창조해야 할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답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가장 손쉬운 대안은 스스로 건축, 도시 분야의 테두리를 지음으로써 전문가의 얼굴 뒤로 회피하는 것이다. 전문 분야의 이른바 업역, 또는 제도적인 한계만큼 편안한 벙커는 없다. 건축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경계와 제도적 장벽, 정책적 오류와 끊임없이 부딪쳐야만 하는 현실은 어찌면 전문가 스스로 만든 것일지 모른다.

건축·도시공간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면 언제나 가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인간의 삶처럼 공간의 문제도 여러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공간의 문제를 일면적인 도구적 합리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가치 탐구를 통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의 문제는 담론적 합리성의 층위로 올라서야만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숲 속에서는 숲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인간적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철학적 효과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이 연구는 공간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회피하였지만, 한편

5) Christopher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으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접근에 대해서 함께 새롭게 고민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다.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삶을 터전을 만드는 전문가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일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문학적 기초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건축 및 공간에 관련된 인문학 연구성과에 대한 수집, 정리, 그리고 공유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문학적 기초라는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사유의 기초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인문학은 사회과학을 일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관련된 학문 분야는 철학, 미학, 문학 및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지리학 등 일부 사회과학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문제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의 문제제기가 적절한지를 밝히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건축·도시 분야의 이론적 연구는 공간과 관련된 분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편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논의를 끌어내고, 다시 이를 공간전문가의 시선에서 재구성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주제들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며, 그중 어떤 문제들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인문학자들의 참여와 연구를 주축으로 새로운 공간담론의 생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일단 공간전문가들과의 논의를 배제한 것은 공간의 영역에서는 인문학자들 간의 소통조차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인문학적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진행될 후속 연구에서는 인문학자들과 공간전문가들 간의 능동적인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연구의 방법

3

연구 자체로서의 의미에 국한하는 추상적인 인문학 연구의 한계를 넘어, 구체적인 건축정책에의 시사점과 추후 관련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인문학 연구는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다루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건축, 도시공간 분야의 연구와 인문학 연구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 현황을 검토할 것이며, 인문학의 위기라고 일컬어 지는 상황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후 건축 및 도시공간 분야의 인문학적 연구에 대한 서지연구를 진행하여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인문학적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인문학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 및 회의를 개최하여 공간정책을 위한 인문학적 기초연구를 위한 주제 및 인적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대효과

4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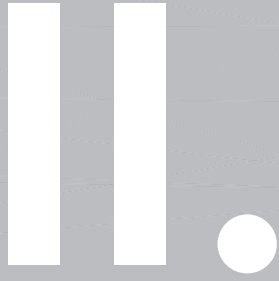
첫째, 국가의 공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목표와 기준, 근거들을 인문학적 성과의 정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공간정책의 구체적인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건축,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혀 학제적이며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후속연구들을 선도함으로써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담론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셋째, 고사 위기의 인문학적 연구에 건축도시공간 분야와의 접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효과를 거둬고 동시에 건축도시공간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연구의 방향을 환기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넷째, 추상적인 담론소통에 그칠 수 있던 인문학 연구의 현실적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

또한 이 연구과정에서 기존 인문학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학제적 연구방법을 구체화하여 건축과 도시공간 분야를 시스템 외부에서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성과는 추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방법론에 적용하여 새로운 공간연구의 지평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에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 현황을 파악하고 인문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적 토양

1. 인문학의 범위와 현황
2. 인문학 위기와 인문정책

(a u r i

우리나라의 인문학적 토양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문학적 토양이라는 제목으로 인문학의 범위와 현황을 통계적으로 점검한 후, 인문학 위기에 관련된 인문정책의 흐름을 짚어 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의 현실과 한계를 인지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적절한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1

인문학의 범위와 현황

1) 인문학의 개념

홉볼트는 인문학의 목적을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규율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전택수, 2001:57).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인문학 입문(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에서 인문학을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박덕규 외, 2000).

환언하면, 인문학이란 인문정신에의 종사요, 이것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사람다운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김남두, 1995:10), 인문학은 ‘인간적인 것’을 규범적으로 반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이성원, 1995). 반성적 탐구로서의 인문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문학이 반성적이라는 사실은 이 학문의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 등에서 여타 학문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또한 인문학, 철학은 학문이나 사회적 제도 등이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인간들에게 가하는 지배를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인문학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긴장의 장에 위치하여 기댈 곳 없는 약자와 개별자를 보호하는 시선이며(정호근: 81-821), 이 긴장의 거리에

서 인문학은 필연의 가상을 깨트리거나 차이의 전망을 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이중수, 2002.4; 2002.12).⁶⁾

인문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로 ‘언어, 문화,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국립국어원)이다. 인문학은 Humanita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고 인문과학, 혹은 인간과학으로도 불린다. 이는 넓은 의미로 인간 및 인간사상 일반에 관한 과학적 연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뜻이며, 중세 이후 신학과 구별되는 인문학, 19세기 이후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학문으로 통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인문과학이 사회과학과도 구별되는 학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두산백과사전). 인문학에 상응하는 외국어를 보면 humanities, human study, human science 등이 있으며, 주로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학문을 분류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상이하다. 미국은 대체로 인문학(humanities)을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언어학, 문학, 시각예술, 응용예술(건축, 디자인, 등), 행위예술(음악, 무용 등)로 분류한다. 프랑스는 인문학과 유사한 인간과학(la science humaine)이라 부르며 행정, 인류학, 고고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심리학, 종교학, 정치학, 사회학을 포함하고, 철학을 제외하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은 철학, 고고학, 종교학, 예술학, 민속학, 신학, 미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문학, 지리학, 교육학, 언어학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리학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가 아닌 대학, 학술재단 등 여러 학술기관들별로 인문학은 다양하게 분류한다. 유럽인문학재단은 인문학을 인류학, 교육학, 고고학, 역사학, 매체학, 예술및 예술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음악학, 고전학, 문학, 철학, 인지학, 언어학, 심리학, 남성/여성학, 동양 및 아프리카학, 종교학 및 신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분류방식의 다양성은 자연학과 정신학으로 나뉘는 2분법적 학문분류체계가 분화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다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분류 또한 시기별, 주체별로 상이하나 서울대학교는 문리과대학이 1975년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로 분화된 후 현재 국가별 언어문학, 언어학, 역사학, 고고미술사학, 철학, 종교학, 미학으로 학제를 구성하였다.

6) 박경하 외, “인문연구의 발달, 가치와 경제적 효과성”, 200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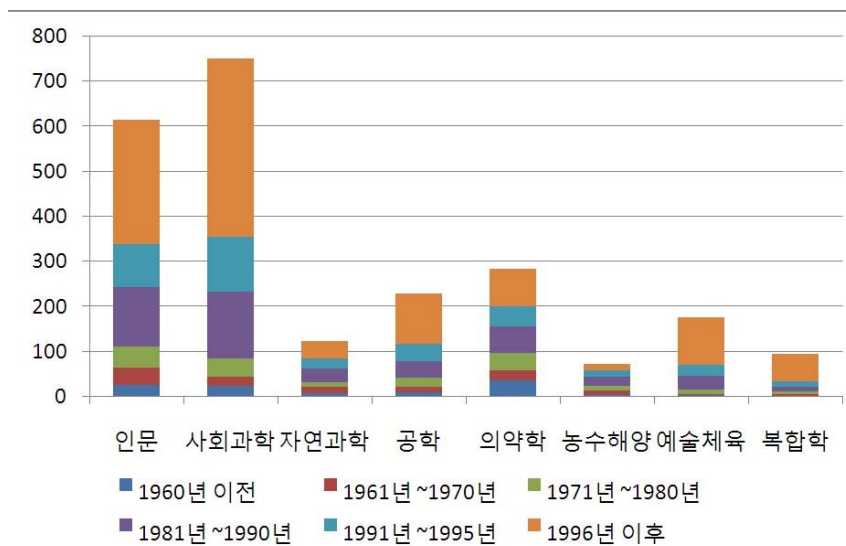
2) 인문학 관련 학회 현황

인문학 관련 학회는 현재 총 616개로 이중 약 45%가 1996년 이후 생긴 신생 학회들이다. 우리나라 총 학회수 2,352개 중 약 46.2%인 1,087개 학회가 1996년 이후 설립된 것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한편 기간별 설립학회 중 인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2%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는다. 요약하면 전체 학회 설립의 약 4분의 1은 인문학 관련 학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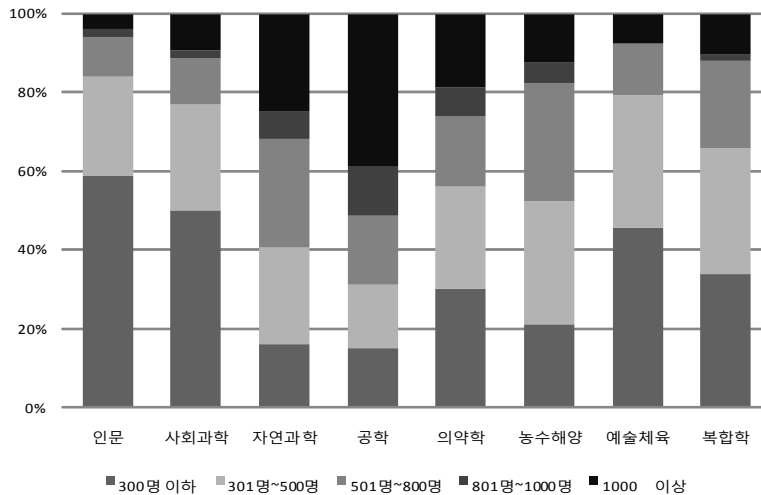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설립현황

분 야	1960년 이전	1961년 ~1970년	1971년 ~1980년	1981년 ~1990년	1991년 ~1995년	1996년 이후	합 계
인 문	26	39	47	131	97	276	616
사회과학	24	20	41	149	122	396	752
자연과학	9	13	11	30	23	37	123
공 학	10	12	20	38	37	113	230
의 약 학	36	23	39	59	44	83	284
농수해양	4	10	10	21	14	15	74
예술체육	5	2	9	31	24	106	177
복 합 학	2	4	7	9	13	61	96
합 계	116	123	184	468	374	1,087	2,352

출처: 학술진흥재단



〈그림 1〉 설립연도별, 분야별 학회수



〈그림 2〉 분야별 학회의 규모 분포 (2007년 기준)

학회수적인 측면에서 인문 및 사회계열이 전체 학회 중 약 58%를 차지하는 반면 규모면에서 보면 소규모 학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007년 기준). 인문학 관련 학회 중 약 60%인 249개 학회가 회원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회이고(전체 평균은 42%), 이는 같은 규모의 자연과학 학회가 16.3%, 공학 15.2%와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인문학학회의 특징을 도출하면, 전체 학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학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문학 관련 대학부설 연구소 현황

2007년 기준 대학부설 연구소는 총 3,070개로 이 중 약 72%인 2,198개가 사립대학 부설 연구소이다. 인문학 관련 연구소의 현황은 국·공립대에 126개, 사립대에 406개로 전체 연구소의 국·공립/사립 비율과 유사하다. 일반 대학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인문학 관련 연구소는 전체 대학 연구소의 14%인 432개 연구소가 있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대학으로 구별해서 보면 국·공립대학 중 일반 대학의 인문학연구소는 14.5%의 비중을 갖는 반면 사립 일반대학의 인문학연구소는 18.2%로 국·공립대학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인문사회 영역을 합쳐 고려하면 더욱 벌어진다. (국·공립대 39%/사립대 36%) 국·공립대학이 더 많은 비율을 갖는 연구 분야는 이학(15.1%/12.5%), 농수해양 관련(8.9%/1.8%) 등을 들 수 있다.<표 2>

대학부설 연구소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률이 42.8% 인데 반해 인문학 관련 연구소는 약 50%의 집중률을 보인다. 이는 인문, 사회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연구(학제 간 연구)를 같이 고려하면 수도권 비중이 전체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합학문의 경우 수도권 집중률이 64%로, 새로운 인문학 관련 학제 연구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2〉 대학부설 연구소의 분야별 분포(2007년 기준)

(단위:개)

대학 종류별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이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	계	백분율	
국·공립	소계	126	217	44	11	125	215	62	72	872	28.40%
	일반	103	173	34	8	107	160	61	63	709	23.09%
	교육	6	21	2	0	6	0	0	0	35	1.14%
	산업	5	11	2	0	5	34	0	7	64	2.08%
	전문	2	6	2	0	2	10	0	1	23	0.74%
	특수	10	6	4	3	5	11	1	1	41	1.33%
사립	소계	406	586	147	36	259	519	203	42	2,198	71.59%
	일반	329	502	104	35	226	386	189	32	1,803	58.72%
	산업	5	17	3	0	0	12	0	0	37	1.20%
	전문	32	59	38	1	33	120	12	10	305	9.93%
	특수	40	8	2	0	0	1	2	0	53	1.72%
합 계	532	803	191	47	384	734	265	114	3,070	100.00%	

〈표 3〉 대학부설 연구소의 지역별 분포(2007년 기준)

(단위:개)

지 역		인 문	사 회	예체능	복합학	이 학	공 학	의약학	농수해	계	백분율
수 도	소계 (비중)	265 49.8%	361 45.0%	90 47.1%	30 63.8%	139 36.2%	275 37.5%	130 49.1%	23 20.2%	1,313	42.8%
	서울	195	262	55	25	94	153	116	9	909	29.6%
	인천	10	21	5	1	8	31	1	2	79	2.6%
	경기	60	78	30	4	37	91	13	12	325	10.6%
지 방	소계	267	442	101	17	245	459	135	91	1,757	57.2%
	부산	33	71	16	1	24	73	22	7	247	8.0%
	대구	13	28	5	1	21	24	18	9	119	3.9%
	광주	24	37	9	2	19	29	11	3	134	4.4%

지 역		인 문	사 회	예체능	복합학	이 학	공 학	의약학	농수해	계	백분율
지 방	대전	25	31	5	4	20	44	9	4	142	4.6%
	울산	3	2	1	0	4	17	1	0	28	0.9%
	강원	23	49	8	2	15	30	16	9	152	5.0%
	충북	16	39	7	2	20	27	7	4	122	4.0%
	충남	36	36	11	1	20	43	5	6	158	5.1%
	전북	20	34	18	1	24	25	22	6	150	4.9%
	전남	16	20	3	0	13	38	2	14	106	3.5%
	경북	33	53	11	2	39	61	9	13	221	7.2%
	경남	23	28	7	0	24	42	9	12	145	4.7%
	제주	2	14	0	1	2	6	4	4	33	1.1%
합 계		532	803	191	47	384	734	265	114	3,070	100%

연구원 규모별 대학부설연구소는 앞의 학회와는 달리 분야별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인문학 분야의 소규모성은 두드러지는데, 인문학 관련 연구소 중 56%인 235개 연구소가 연구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소이다. 반면 이학은 33.5%, 공학은 40.1%의 연구소가 10명 미만으로 구성된다.<표 4>

이는 5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는 대규모 연구소의 분포추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 관련 연구소의 8.6%가 5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으나, 이학은 17.3%, 공학은 14%로 약 두배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 연구원수의 규모에 따른 대학부설 연구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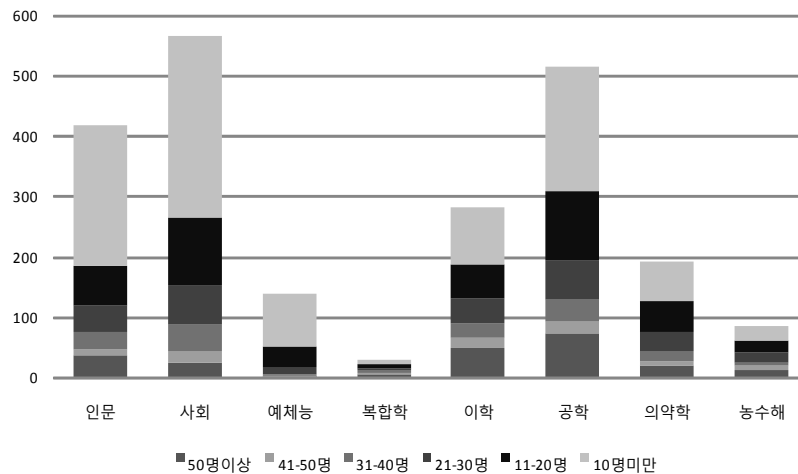
(단위:개)

	인 문	사 회	예체능	복합학	이 학	공 학	의약학	농수해	계
50명 이상	36	25	2	4	49	72	20	11	219
41-50명	11	19	1	4	18	21	7	8	89
31-40명	28	45	3	3	23	36	18	6	162
21-30명	45	65	11	3	42	65	30	17	278
11-20명	65	112	35	7	57	115	51	18	460
10명 미만	235	302	86	9	95	207	67	26	1,027
합계	420	568	138	30	284	516	193	86	2,235

중사연구원의 비중을 볼 때 전체 연구원들 중 41%가 50명 이상의 대규모 연구소에서 정소하고 있다. 인문학 관련 연구자들은 38%, 사회과학 관련 연구자들은 20%만이 대규모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 반면 이학 및 공학은 각각 55.5%, 50.7%로 과반이 넘는 연구자가 대규모 연구소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자료들을 볼 때 대학부설 인문학 연구소는 학회의 분포와 유사하게 소규모 연구소 위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4) 인문사회 분야 연구활동 현황⁷⁾

2005년 인문사회연구활동비는 총 3080억 규모로, 그중 경상비가 2,195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94.6%를 차지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인문학 분야는 전체 연구비 3.7%인 100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했다(이광희, 2006, p.16). 연구활동인력 1인당 사용 연구비는 2005년 기준 약 8,840만원이며, 연구원 1인당 1억 2,830만원이다. 이 중 서울지역이 전체 연구비의 67.6%인 2,382억원을 사용했고, 경기 23.7%인 833억원, 부산 1.8%(64억원)순이다. 즉, 연구활동비의 수도권 집중율은 90.3%(3,215억원)에 달한다(이광희, 2006, p.41). 또한, 연구활동인력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 중 88.8%인 3,540명이 집중해 있다(이광희, 2006, p.44).



〈그림 3〉 연구원 규모별 대학부설 연구소 현황 (2007년도 기준)

7) 인문사회 분야 연구활동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교육통계연보',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국가연구개발조사, 분석, 평가' 등이 있다.

연구활동비 중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비를 놓고 보면 인문학에 대한 연구 지원은 1986-2001년 16년 동안 약 200억으로 전체의 6.3% 수준이며, 어문학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410억원, 13.2%에 불과하다. 그래프를 보면 1992년 이후 공학과 이학과 경제학을 포함하는 사회학의 연구비 지원과 인문 및 어문 관련 지원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공계는 전체 중 1320억원으로 42.2%의 지원을 받아 인문 및 어문계열의 약 세 배의 지원을 받았다.

〈표 5〉 1986-2001년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분야별 분포

(단위:백만원)

연 도	어 문	인 문	사 회	이 학	공 학	의약학	농 학	수해양	예체능	총 계
1986	0	430	435	587	620	319	329	0	53	2,772
1987	0	333	642	722	960	459	461	0	86	3,662
1988	0	457	742	862	1,257	562	536	0	36	4,452
1989	0	438	821	963	1,407	590	702	0	93	5,014
1990	111	716	1,504	1,683	2,523	1,036	1,363	15	223	9,174
1991	62	793	1,814	1,772	2,579	1,139	1,240	29	159	9,588
1992	55	1,007	1,734	1,357	2,208	1,057	1,098	51	199	8,766
1993	113	1,096	2,291	2,279	3,589	1,606	1,313	114	201	12,601
1994	930	567	2,707	3,297	4,870	1,898	1,574	342	279	16,462
1995	1,400	841	3,330	3,358	4,944	1,926	1,526	495	334	18,153
1996	1,822	1,208	5,231	4,754	8,211	3,023	1,851	796	530	27,426
1997	3,285	1,980	8,882	6,468	12,494	4,239	1,935	869	952	41,105
1998	2,920	2,093	7,877	4,627	8,936	3,939	1,286	721	1,124	33,522
1999	3,117	2,850	9,641	6,722	8,901	5,435	2,053	555	1,203	40,475
2000	3,237	2,287	8,734	6,284	7,735	5,005	2,187	381	844	36,696
2001	4,581	2,762	11,371	7,010	8,039	5,757	2,211	227	1,096	43,054
계	21,633 (6.9%)	19,858 (6.3%)	67,758 (21.7%)	52,742 (16.9%)	79,272 (25.3%)	37,989 (12.1%)	21,664 (6.9%)	4,595 (1.5%)	7,411 (2.4%)	312,922 (100%)

자료: 염재호, 최호철, (2002) 학술진흥재단, p.2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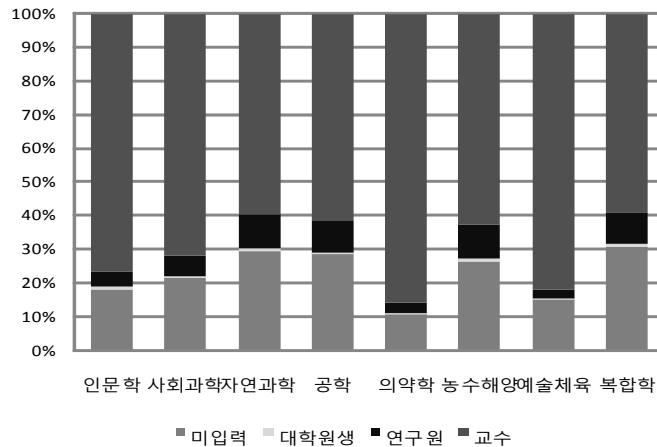
인문사회 분야 연구활동 인력(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타 지원 종사자 등)은 2005년 기준 총 3983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연구원은 69%인 2,746명이었다.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인력 구성비는 약 7:3이다. 또한 박사급 연구원은 1,640명(41%)인 데 반해 석사급 연구원은 897명(23%)에 불과하다(이광희, 2006, p.18). 이를 연구원들의 직위별로 보면 2008년 1월 기준, 교수가 전

체 연구인력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경우 10%에 불과하다. 인문학 분야의 경우 이러한 교수 집중성이 더욱 강화되어 전체 연구자 약 2만명 중 76.4%인 1만 5천명이 교수 직책을 갖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 역시 비슷한 수치(71.8%)를 보여준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교수가 아닌 일반연구원의 입지가 협소함을 반증한다. 반면 자연과학 및 공학의 경우 10% 내외의 연구원 비율을 가지며 교수의 비율은 60%선이다.

〈표 6〉 인문사회 분야 연구활동인력 현황

(단위:명)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미입력	계
교수	소계	15,057	18,894	10,058	18,937	13,747	2,752	7,605	1,051	7,489	95,590
	분야 내 비율	76.4%	71.8%	59.4%	61.1%	85.6%	62.3%	81.7%	59.1%	12.7%	51.8%
연구원	소계	881	1,525	1,737	2,928	469	457	221	161	9,941	18,320
	분야 내 비율	4.5%	5.8%	10.3%	9.4%	2.9%	10.3%	2.4%	9.1%	16.8%	9.9%
대학원생	소계	142	131	108	114	31	27	20	14	294	881
	분야 내 비율	0.7%	0.5%	0.6%	0.4%	0.2%	0.6%	0.2%	0.8%	0.5%	0.5%
미입력		3,618	5,760	5,040	9,022	1,818	1,182	1,462	553	41,319	69,774
합계		19,698	26,310	16,943	31,001	16,065	4,418	9,308	1,779	59,043	184,565



〈그림 4〉 연구인력 직책별 구성비 (2007년 말 기준)

연구인력의 성별분포는 2005년 남성 대 여성 비율이 76:24로 남성이 2배 이상이 많았다(이광희, 2006, p.22). 이러한 분포는 2008년 현재 더욱 심화되어 남성 대 여성비율이 80:20으로 격차가 더 늘어났다. 여성인력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공학 교수가 3.8%로 가장 적고 의약학 연구원이 68%로 가장 높다. 인문학의 경우 모든 직책이 25% 내외의 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복합학문의 경우 여성인력비율이 교수 39.2%, 연구원 32.3%, 대학원생 32.5%로 인문사회 과학 영역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표 7〉 분야별 연구인력 여성비율 (2007년 기준)

(단위:%)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해양	예술 체육	복합학	기타	계
교수	27.1	15.4	24.3	3.8	18.3	7.2	32.7	39.2	29.3	19.0
연구원	25.7	22.5	52.2	5.8	67.9	19.1	36.2	32.9	32.2	25.2
대학 원생	24.1	18.1	23.9	5.6	22.4	11.8	33.9	32.5	24.9	21.1

〈표 8〉 대학의 대분류별 전공단위별 졸업자 비율 전망

(단위:%)

연도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전체
1991	18.6	26.5	9.1	17.9	17.4	3.8	6.7	100
2001	15.3	25.2	5.6	25.8	15.2	4.3	8.6	100
2011	14.5	22.1	6.4	29.9	13.8	3.3	10.0	100

출처: 2005, 한국교육 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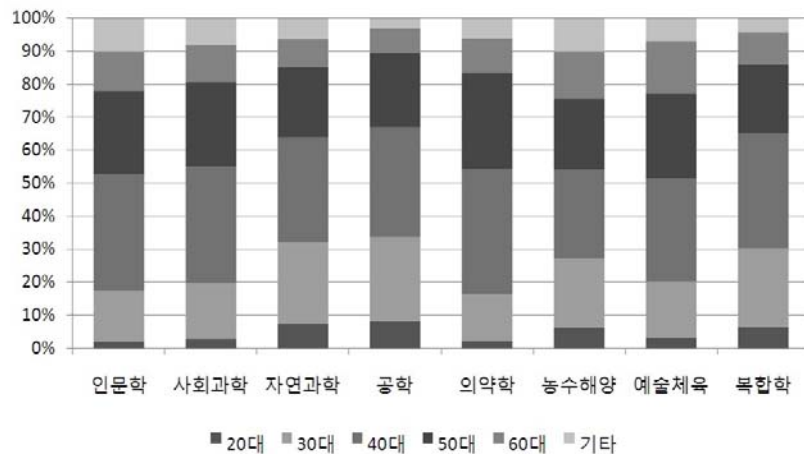
2005년 기준 연구활동인력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6.2%, 40대가 34.8%로 30-40대가 전체 중 71%를 차지한다. 30세 이하 연구인력 비중이 높은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연기관(19.4%)과 영리 민간연구기관(27.3%)이며,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연구인력 비중이 높은 연구기관은 정부산하출연기관 및 공공연구기관(19.9%)이다(이광희, 2006, p.21). 약 3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2007년말 기준 30대가 25.6%로 10% 감소했으며, 40대가 30.5%로 4%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의 연구인력비율이 높아져, 전체적인 평균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향후 전공단위별 졸업자 비율 전망을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인문학 관련 분야 또한 이러한 연구인력 고령화현상을 나타낸다. 2007년 말 기준 전체 인문학 연구인력은 40대가 35.5%로 전체 평균 30.5%보다 다소 높으나 30대의 경우 15.5%대 25.6%, 20대의 경우 1.8%대 9.7%의 격차를 보인다. 즉,

인문학 연구인력의 20대 30대 비율구성이 대단히 낮으며, 새로운 연구인력의 공급도 더더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대별 연구인력의 분야별 분포에도 드러나는데 40대의 경우 인문학이 자연과학보다 더 많은 연구자를 갖고 있지만 30대부터 역전되어 20대의 경우 연구인력이 자연과학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표 9〉 연구인력 분야별 연령대 구성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미입력	계
20대	355	697	1,227	2,461	340	263	271	112	12,217	17,943
30대	3,063	4,449	4,201	8,041	2,298	935	1,613	424	22,228	47,252
40대	7,001	9,345	5,426	10,273	6,117	1,198	2,895	624	13,500	56,379
50대	4,920	6,697	3,555	6,943	4,659	947	2,403	370	7,205	37,699
60대	2,378	3,028	1,448	2,322	1,684	625	1,472	174	2,401	15,532
기타	1,981	2,094	1,086	961	967	450	654	75	1,492	9,760
합계	19,698	26,310	16,943	31,001	16,065	4,418	9,308	1,779	59,043	184,565



〈그림 5〉 연구인력 분야별 연령대 구성비율

연령대별 여성인력 비율을 보면 젊은층으로 갈수록 여성참여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60대의 여성비율 11.2%에서 20대는 52.8%로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인문학의 경우 이 추세가 보다 강화되어 20대의 연구자 중 여성비율은 71.3%, 30대의 경우 53.6%를 차지한다. 또한 학제 간 연구가 많은 복합학문의 경우에도

도 20대 70.5%, 30대 55.4%로 인문학과 비슷한 구성비를 차지한다. 이를 놓고 볼 때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령대별 분포특징은 젊은 연구자들의 수가 타 분야 보다 적으며, 그중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음을 들 수 있다.

〈표 10〉 연구인력의 여성비율(2007년 기준)

여성 비율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해양	예술 체육	복합학	미입력	계
20대	71.3%	67.1%	67.9%	25.3%	78.2%	63.5%	67.5%	70.5%	54.0%	52.8%
30대	53.6%	39.9%	38.2%	9.6%	44.2%	31.7%	50.3%	55.4%	33.6%	33.1%
40대	33.6%	22.3%	27.2%	5.3%	23.6%	13.5%	38.5%	40.7%	21.1%	21.8%
50대	33.6%	22.3%	27.2%	5.3%	23.6%	13.5%	38.5%	40.7%	21.1%	21.8%
60대	13.8%	8.6%	18.7%	1.5%	16.8%	4.8%	24.7%	28.7%	4.8%	11.2%

인문학의 위기와 인문정책

2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기초는 소위 ‘교육개혁’이라는 모토하에 진행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교육정책의 새로운 기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는 비단 교육정책의 영역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 혹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최광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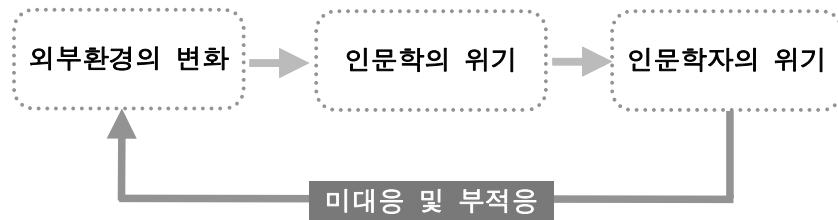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육개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학의 학부제 도입,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 및 지원과 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소위 ‘BK 21’ 사업과 같은 선별적 지원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주고,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지니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학문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없는 학문을 퇴출시키거나 적어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에 대한 연구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대한 인문학(혹은 인문학계)의 반응은 이전에 볼 수 없는 매우 통일적이고도 격렬한 위기론의 제기로 나타났는데, 1996년 11월 제주대학교에서 있었던 전국 21개 국·공립대학 인문대 학장의 ‘인문학 위기

선언'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주경복, 1999: 116). 그리고 인문학 위기의 담론이 학계를 비롯하여 언론을 비롯한 일상적인 수준에서, 그것도 매우 심각한 어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⁸⁾

1990년대 이후 인문학에 대한 위기와 학문 일반에 대한 위기가 제기되었다. 10여 년 동안 제기된 이러한 학문의 위기담론은 학계뿐만 아니라 신문 등 여타 매체를 통해서도 전파되었고, 그 심각성으로 인해 대통령자문회의 및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

위기를 대하는 학자들마다 논의가 조금씩 상이하나, 대체로 인문학의 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나는 현재 사회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훈고학적인 지적태도에서 기원하는 인문학 학문 자체의 위기와, 다른 하나는 이를 반영하는 사회의 대응으로 인문학자의 위기라 부를 수 있는 학문 시스템의 붕괴이다. 이를 김여수는 인문학 연구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김여수, 2005).



두 가지 위기에 대한 강조점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염재호, 최호철은 교육정책의 비일관성 및 부정적절성으로 인해 인문학의 위기가 외재요인에 의해 심각해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인문학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소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고유의 학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제껏 한국에서 평가할 만한 ‘인문정책’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염재호, 최호철, 2002, p.2-9).

문제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다. 임홍빈은 531 교육정책 중 대학학사운영의 자율화와 학생의 학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학부제가 현재의 인문학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임홍빈, “사회적 수요 창출하고 복합

8) 염재호·최호철, “한국인문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과제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07, 2002, pp.3-4

학문 육성하자”, 신동아, 2001년 7월호). 이는 신자유주의에서 인문학 위기를 찾는 데 대해 비판적인 최종옥(2001) 또한 학부제가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염재호, 최호철, 2002, p.6).

1992년 출범한 문민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대통령보고서인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소위 531 교육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5.31 교육개혁안 중에서 고등교육 개혁방안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설립, 정원, 학사운영 자율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을 담고 있다. 결국 이 개혁안의 핵심 주제는 다양화와 특성화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특성을 살린 전문점식의 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제5차 대통령보고서에서도 그 기초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중심대학의 집중육성’과 이에 따른 ‘대학평가 계획’이 추가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문민정부의 시장경쟁의 논리에 의한 교육개혁정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장경쟁의 논리에서 더 나아가 소위 ‘대학구조조정’의 논리가 추가됨으로써 학문 간의 경쟁구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정책은 인문학뿐만 아닌 학문 전체의 위기를 야기한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을 교정해야 했으나, 오히려 대학수의 증가와 입학정원 증가를 계속 허용했다(염재호, 최호철, 2002, p.22-23). 그 결과 졸업생의 취업률 및 취업자의 직업안정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졸업자 중 인문학 전공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1〉 인문학계 일반현황

지표 구분	통계치
학부생 정규직 취업률	40.1% (평균 49.2%)
학부생 취업 전공일치도	48.8% (평균 68.9%)
대학원생 정규직 취업률	45.7% (평균 62.8%)
대학 연구비 중 인문학	3.8-5.2%
교보문고 인문서적 매출비율	24.15%
인문계 학부생 비율	14.4% (2005년)
인문학 연구자 비율	13.6% (2005년)
대학 연구비 중 인문학계 지원비율	3.8%(900억원/2조3700억원, 2005년)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한겨레신문, 2007년 5월 18일자 재인용

인문학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이와 같은 방식 중 신자유시대 경쟁체제라는 사회구조와 덧붙여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 및 영상시대로 돌입하는 혼란기를 상징하기도 한다(김여수, 2005). 반면, 김동노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 잘못된 학부제에서 기인한 인문학 교육의 위기, 2) 학문 후속세대 발굴 곤란, 3) 연구비 지원의 열악함을 위기의 양상으로 제시하였으며(김동노, 2002), 한형조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인문학 위기 및 제도의 붕괴로 인한 최근의 현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으로 정리하고 있다(한형조, 2006, p.12-15).

(1) 학교에서의 인문교육 확대

“중고등학교에서는 인문교육이 입시교육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실용적 학문을 강조하면서 인문교육이 고사되고 있다.”

(2) 인문학 지원 전공자 감소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한 인문학과에서 5년에 한 명 정도가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며…… 2002년 입학생의 경우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의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 국정감사 브리핑에 의하면, 인문학 분야에서 단 한명의 박사과정 신입생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인문지식 시장위축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인문학 전공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2003년 69.4%에서 53.4%로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2005년 각 계열별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인문계열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표본조사를 통해 보면) 정규직 취업률은 17.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도 인문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 진흥정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 대학에 의존했던 미국도 1965년 ‘국립인문학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를 설치하고, 1982년 ‘대통령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1992년 ‘창조적 미국(Creative America)’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한형조 외, p.3). 즉, 사회변화에 맞추어 인

문학의 진흥을 도모하는 국가적인 인문정책이 필요하였고, 이는 인문학 위기를 말하는 모든 학자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또한 인문학과 관련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을 강화했다. 영국은 1988년 ‘예술 및 인문학 연구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 AHRB)’를 설치했고, 2005년 4월 법적 연구소인 ‘예술 및 인문학 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를 출범했다. 프랑스는 ‘국립 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와 ‘인간과학관(Maison des sciences de l'homme)’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독일연방 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 DFG)’산하 ‘인문과학센터(Geisteswissenschaftliche Zentren: GWZ)’ 등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한형조 외, p.3-4). 각국의 인문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단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각국의 인문정책 추진기구 현황

국가	기구	목적	지원기구와 규모	지원대상과 분야
미국	NEH NEA 주립 NEH	-인문,예술 연구지원 -비판적 사고형성 -인문직업 개발과 대학원 연계 -인문연구와 교육 지원	-NEA, \$104,769,000 -예술·인문대통령위원회 -최근 연방 차원의 인문 연구비는 감소 추세임	-문화자원 제공과보호 -대학인문학 교수와 학습의 강화 -인문연구와 장학금지원 -인문생애교육 -인문학제도 기반구축 -문화적전통과 계승 보호
	NSF	-연구비지원을 통한 과학 기술연구촉진 -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육성방안 평가 -기초연구진흥과 과학 기술 향상을 통한 국가 목표 달성 -학제연구 지원	-국립과학재단(NSF) -1,200명 직원 중 130명이 초청연구원 -1999년 예산 4조 1800억원 -매년 2만건 내외의 연구와 교육 프로젝트 수행 -연방정부부담 R&D 점증 -NSF 예산 점증 -정부예산 대비 점고	-과학 및 공학연구와 교육 기금 제공 -2천개 이상의 대학과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연구비 제공, 과학발전 도모 -기초연구학술기관지원비로 20% 제공-매년 연구,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1만건 지원 -국책연구기관 지원
프랑스	CNRS HS 인문학 의 집 대학 연구소	-기초과학잠재력의 최고 수준 유지 -과학발전연구프로그램의 수행, 감독, 평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과학정보의 개발과 보급 및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과학지식 증대 -과학기술신진인력 교육과 훈련체계화 -프랑스와 세계과학기술 현황 파악 및 전망 -학제연구지원	-인문사회의 경우 7개 연구 부서와 1,250개 연구단위로 구성 -사회과학, 경제학부의 경우 평균과제지원비는 6만 5천 달러(약 7천 2백만원)이며, 과제수행기간은 보통 2년, 연장 가능 -총 인원 26,000명 -총 예산 2조 3천억원 -인문 분야는 14.3%임 -최근 산학연 협동연구 중시	-7개 학문 분야 학제간 연구의 체계적지원 -학문 후속세대 지원 -희귀학문 분야 지원 -대학과 연구 소간, 연구 소간 공동연구지원 -인문자료센터 지원

국가	기구	목적	지원기구와 규모	지원대상과 분야
영국	영국 학술원 AHRP 대학 연구소	-유럽 전통의 역사학의 재조명, 세계의 민족과 지역 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 -국가에서 연구비 지원 -운영은 자율화	-영국학술원의 18개 인문 학 하위영역 연구팀 운 영, 25개의 타학문 연 구기 관 공동협력 -AHRP(Arts & Humanities Research Funding)의 2002~2003년도 연구비 지원 규모는 5천 4백만' (약 1080억), 2003~2004 지원금 7천만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학문후계자 육성 -인문학의 정신과학적 영향 및 영국의 전통연구
독일	연방교육 연구부 독일연구 협회 회원 연구소 대학 연구소 인문학 연구센터	-자연기초과학, 응용과학 에 집중적인 지원과 인문 사회학 분야도 지원 -신평터다임 연구개발에 국가재정의 총 집중투자 -학문후계자양성, 국제교류, 공동연구지원 -유럽연합체 지원센터 KOWI 운영	-연간 3억5천만 유로화 지원 -산업체 연구소는 독자적 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투자 -모든 연구소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협조체제로 분 리 운영 -KOWI를 조직하여 유럽 위원회에 민간연구자문 기관인 IGLO 지원	-산업체가 직접 교수를 연구원 으로 채용하고 연구용역 공모 를 통하여 신소재개발과 6T에 대한 집중 연구 -대학교수는 일정기간 대학과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교환근무 해야 함
유럽 연합	유럽연합 윤리 위원회 IGLO	-브뤼셀 유럽 본부 내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회원국(14개국)의 개 별민간 연구단체 정보 지원	-제6차(2002-2006) 국제 연구사업에 연합국 GDP 3% 지원 (5차에서는 1.8%)	-회원국의 모든 학술 및 전문대학, 기업 및 민간연구소 모두가 회원
일본	일본학술 회의 문부성 학술 심의회 일본학술 진흥회 (JSPS)	-차세대소장학자 지원 -국제과학협력촉진 -산학협력촉진 -학문연구활동정보 수집 분배 -인문학적 접근 -정책중요성 제고	-1995년 현재 문부성의 R&D예산은 1,157억엔. 구성비 46.5%임. -JSPS예산액은 점증, 정부 예산대비 비중은 감소 추세 -1995년 현재 JSPS 예산 은129억 9천만엔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경도대 인문과학연구소 등으로 특화하여 연구교수 배치 지원 -국립대학공동이용기관 -국립대학부설연구소 -국립대학연구센터 -연구시설 -국제교류 및 학제연구활성화

출처: 박덕규 외, 2000, pp.188-189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는 국가의 인문정책 수립 개입 필요성은 2000년대에 들어와 인문사회연구회의 강화 및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강화를 이끌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2002년 50여개의 인문정책 연구보고서를 출간했으며, 그 후 인문정책연구 총서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은 BK21과 같은 '인문한국'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교육부는 '인문진흥계획'을 수립, 인문학의 기반을 재정립하는 인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의 혁신과정들은 조금씩 상이하나 크게 1)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인문학적 담론과 자연과학 및 공학 등 제반 학문과의 소통, 2) 대중이 느끼는 사회 일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중 소통 능력, 3)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를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

다. 현재 정부의 인문정책의 큰 방향 또한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인문한국'의 첫 연구주제 선정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학제 간 연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가 인문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문정책 추진방향을 비판하는 학자들 또한 존재한다. 염재호와 최재철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고등교육정책의 오류를 교정하고 인문학 연구자에 대한 다양하게 지원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다시 세우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염재호, 최호철, 2002, p.10). 즉, 인문학자들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인문학자의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넘어, 인문학 자체가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인문학 패러다임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진행된 연구조차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2002년 인문정책연구소의 50여개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정책과제들 중 상당부분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가 확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인문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심도 높은 논의와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우리나라의 인문학은 현재 정부의 주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대학사회 자체의 학제 구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고, 인문학 분야의 비인문학적 여건 속에 우리의 인문학은 일종의 경쟁구도에 내몰리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으로서의 본령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등 연구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데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분야의 인문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의 연구성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결실을 보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인문학적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공간과 인문학

1. 건축도시공간분야의 인문학적 한계
2. 건축도시공간 연구분야의 인문학 연구현황
3.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인문학 연구의 필요성

(a u r i

건축도시공간과 인문학

1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인문학적 한계

일반적으로 건축 및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학문 분야는 계획(planning)과 설계(design)를 비롯하여 시공(construction), 구조(structure)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들 학문은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 이름으로 주로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드물게는 사회과학대학 등의 단과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건축과 도시공간 분야를 이공학, 과학계열의 학문으로 인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반면, 서양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건축학의 교육편제를 인문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학문체계를 신(God)이 창조한 우주 대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대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자연과학(natural science)과 인간이 우리 인간을 위해 연구 개발해 놓은 인문학(humanics) 분야 등⁹⁾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서양의 학문적 발로와 우리의 그것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학문의 체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건축 및 도시는 인간이 사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본질적 측면에서, 또한 그 삶의 공간을 창조하고 이용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도 건축 및 도시 분야를 연구하고 공간을 창조하는 데 최우선의 고려대상이 인간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중세 고딕성당에서 볼 수 있듯이 12세기부터 서양에서 건축은 이미 철학적인 논의의 대상이었고 건축 및 도시공간을 사고하는 흐름은 사회를 분석하

9) 박한규, “건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건축, vol.48, n.12, 2004

고 바라보는 틀에서 인지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상체계를 단절시킨 채 서양의 교육체제를 받아들여 동양적 사유기반 위에 서구의 기술문물만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대화 이후 도입된 건축 및 도시공간 분야 학문에서 인문학적 사유체계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 분야 인문학 연구현황

2

본격적인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반세기 만에 도시화율이 90.2%(2005년)¹⁰⁾에 달한 우리나라 도시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도시건설에 필요한 설계, 구조, 시공, 재료, 설비 등 기술적 측면의 최첨단화가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또, 유비쿼터스, 초고층 등 새로운 첨단기술과 공간용어들로 인해 우리 주거환경도 첨단화되고 개선되어 물리적 양적 성장이 마치 삶의 질 또한 급격히 향상시킨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비용의 증가, 생활환경 악화 등 질적 저하가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더구나 경제적인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생태, 행태, 심리 등의 본질적 가치를 경시한 건설이 이러한 공간의 문제를 낳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건축 및 도시공간의 연구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원리를 고민하기 위한 인문적인 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저변은 여전히 편협한 실정이다.

1) 건축도시공간 분야 인문학 연구의 분류현황

국내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는 건축과 도시의 계획 및 설계, 구조, 시공, 환경 및 설비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계획 및 설계 분야의 연구의 분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의 『AURIC 연감』에서는 건축계획 및 설계와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획 및 설계 분야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분류는 공간의 규모와 시설, 혹은 분석 분야에 따른 것이다. 계획이론과 분석에 관한 분류는

10) 환경부, 「환경통계연보」, 2007

도시계획 분야에서만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인문학과 관련된 연구도 계획이론으로 함께 분류되어 있다.

〈표 13〉 AURIC의 연구 분야 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거건축 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일반
	비주거건축 계획		도시관리
	복합건축 계획		도시구조
	단지 및 조경 계획		토지이용
	설계방법론		도시설계
	실내건축		교통계획
	제도 및 교육		토지 및 주택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도시경제 및 부동산
			GIS 및 환경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경우도 역시 계획이론에 관한 세분류는 하고 있으나 인문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하여 계획이론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등과 함께 계획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 분야 분류

대분류	세분류	대분류	세분류
계획일반	계획이론/비판	환경/관광	환경/관광
	도시화		도시환경/생태
	도시사		환경오염
	GIS/컴퓨터 응용		여가시설
	정보화		공원녹지
도시일반	계획(국토/광역/도시)	단지계획	도시개발/신도시
	도시구조/시설분포		도시설계/상세계획
	계획기법/조사분석		도시경관
	도시재난		역사보전
	도시시설		주거환경
	도시체계/도시기능		
토지	토지제도/정책	지역경제	지역경제일반
	토지이용		지역개발
	토지관리		산업관련
	지가/부동산		SOC
	주택		인구이동
교통	교통일반/정책	행정/정책	도시정부/일반
	교통수요		법규/제도
	교통수단/노선선택		주민참여/보상
	교통시설		재정/집행/평가
	대중교통		

또, 실내건축 분야에서도 공간의 시설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문학에 관련한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여 디자인이론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표 15〉 실내건축 분야의 연구 분야 분류

대상공간	세분류
공간 일반	
주거공간	전통주택/ 현대주택
상업공간	호텔공간/ 상점공간/ 식음공간/ 결혼식공간/ 백화점공간/
공공문화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종교공간/ 공공공간/
업무 및 병원공간	업무공간/ 병원공간
기타	가구/ CAD/ 디자인방법/ 디자인이론/ 교육/ 기타

자료: 신화경 외, “실내디자인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호, 1997

이처럼,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는 공간의 규모와 이용형태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이론적 기반에 대한 비중도 적고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건축도시공간 분야 인문학 관련 연구실적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의 『AURIC 연감』(2007)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 23개 논문집에 발표된 건축·도시분야의 연구논문은 2,331편에 달한다.¹¹⁾ 또, 공식적으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의 정보 검색 결과, 2007년에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3,335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중 인문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과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를 배제한 계획과 설계 분야의 논문을 주로 다루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학회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학회에서 2007년 발간한 논문집의 총 연구논문 수는 대한건축학회 633편, 한국도시설계학회 76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0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34편으로 1,100여 편에 이른다.¹²⁾

11)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연감, 2006 건축·도시 연구 동향”, 2007

12)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의 경우 계획편과 구조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체 수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의 학회 논문집을 검색한 결과로서 『AURIC연감』에서 제시하는 정규학술대회 논문집에 의한 통계치와 상이할 수 있음

이들 연구들 가운데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110편으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영역으로는 철학, 기호학, 미학, 언어학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회별로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62편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시설계 학회는 인문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논문이 없어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¹³⁾

이처럼 공학과 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보다는 계획이론과 공간분석과 관련한 연구가 많은 이들 공간계획 및 설계 관련 학회의 논문에서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실적이 전체 중 10%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공간 분야 연구의 과학기술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6〉 건축·도시 계획 및 설계 분야 주요 논문집의 인문학 관련 연구실적 (2007년)

구분	기호학	미학	언어학	철학	계
대한건축학회	5	9	5	27	4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	2	2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7	18	7	20	62
계	22	27	12	50	110

3) 건축도시공간 분야 인문학 관련 연구경향

앞에서 검토했던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인문학 관련 연구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그 스펙트럼은 크게 다양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먼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인문학적 접근은 주로 하나의 이론이나 계획가의 공간구성 방식에 대한 해석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철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철학이론을 통한 공간해석과 건축가의 건축철학을 통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양분된다.

철학이론을 통하여 공간해석을 한 연구로는 “질 들뢰즈의 ‘생성 혹은 되기’ 개념을 통한 현대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¹⁴⁾, “하버마스의 합리성으로 본 네덜란드구조주의 건축의 소통적 특성연구”¹⁵⁾,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통한 욕망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¹⁶⁾ 등을 예로 들 수

13) 이 조사에서는 별도의 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로 분류되어 있는 역사 분야의 연구실적은 제외되었음

14) 유정호·조한, “질들뢰즈의 ‘생성 혹은 되기’ 개념을 통한 현대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10

15) 이승희·임석재, “하버마스의 합리성으로 본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소통적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2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철학적 이론을 통해 건축공간을 해석하고 공간에의 적용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또, 건축가의 건축철학을 통한 인문학적 접근 연구로는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구성 요소를 활용한 주택 계획”¹⁷⁾,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프래그머티즘적 의의에 관한 연구”¹⁸⁾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는 건축가의 건축철학과 그 공간의 의미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다.

또, 공간을 새로운 기호로 해석하여 그 의미와 디자인을 도출하기도 한다. “현대 건축공간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¹⁹⁾, “유기론적 해석을 통한 유비쿼터스 구조와 조직체계 연구”²⁰⁾ 등을 보면 기존의 철학과 기호학을 매개로 하이퍼텍스트나 유비쿼터스 같은 미래지향적 공간구성의 원리를 해석하고 있다.

이 밖의 역사학 분야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에서 별도의 학문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사주명리학을 활용한 거주자평가 방법분석에 관한 연구”²¹⁾ 등과 같은 전통철학을 통한 공간해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건축·도시공간 분야에서 시도된 인문학 관련 연구들의 주제는 공간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철학이나 미학이론을 건축적 언어로 재해석하여 또다시 건축계 내부적 문제로 한정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도시공간 분야에서는 인문학을 통해, 인간 중심의 인문학을 공간에서 인간을 배제시킨 공간적 언어와 기호로 번역하는 배타적인 연구를 하는 경향이 보인다.

주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중립적인 공간에 대한 해석은 그 해석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들뢰즈의 공간개념이 주체와 생성이라는 개념 없이 적용이 가능할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

16) 안은희·이정옥,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통한 욕망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7. 8

17) 홍석호·김광배,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구성 요소를 활용한 주택 계획”,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10

18) 이영화·이상호, “프랭크로이드라이트건축의 프래그머티즘적 의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7. 2

19) 이선미·심은주, “현대 건축공간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7. 11

20) 박희령·조택연, “유기론적 해석을 통한 유비쿼터스 구조와 조직체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11

21) 최성수, “사주명리학을 활용한 거주자평가방법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7. 10

까.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얻으려는 성과가 인문학적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인문학자들은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4) 건축도시공간 분야 외부에서의 인문학적 접근

인문학자들의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사회학자, 어문학자, 철학자 등이 각자의 전공연구 분야를 기반으로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비평 및 해석을 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진경(서울산업대 교수)²²⁾는 서구 근대주거공간에 대한 논문 발표 이후 건축/공간에 대한 비평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현대건축’에 대한 철학적 비평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김우창(고려대학교 명예교수)²³⁾은 국제공항(1991)에 대한 에세이를 발표했고, 강내희(중앙대학교 교수)²⁴⁾는 1990년 이후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 미술비평에서 공간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이동석(미술평론,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이 있다.

건축·공간 분야, 또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연구는 그 내용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공간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설계와 같은 전문 분야에 어떤 함의와 접점을 가지는지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인문학자들의 연구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전문연구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3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인문학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사는 건축·도시공간은 인문학을 통해 기본적 인간의 가치를 논하고 개발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참다운 가치를 제공받고, 예술과 기술 또한 사회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현실 속에 종합적 해결책을 제공받는²⁵⁾ 영역이다. 이 모든 영역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정주공간의 담론을 형성하고 이상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위한 올바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간연구도 인문학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0

23) 김우창, “국제공항: 심미적 이성의 탐구”, 솔, 1992

24) 강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7

25) 이정만, “건축의 인문학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건축 2007년 6월

하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공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체계와 행위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공간에 대한 사유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다. 또, 주지하다시피 건축·도시공간 분야는 공간의 구축을 위한 기술적 측면과 디자인을 위한 예술적 측면 등을 총망라해야 하는 종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문학적 학문역량은 부족하고 인문학적 접근도 공간적 언어 해석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흔히 건축·도시 분야에서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때, 공간 분야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이나 가치에 대한 손쉬운 답변을 줄 수 있는 인문학은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에 가까울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간의 가치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인문학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반인문학적 소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적 성찰의 내용을 스스로의 문제의 틀에서 바라보며 왜 현실 대안을 내놓지 않는냐고 묻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오히려 그 전문가의 문제의 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문제가 정의된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관점이 효용이 없는 것일지 모른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욕망이 크지, 아니면 스스로의 관점을 방어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지의 문제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 풀리지 않는 관점을 견지한 채로 그 틀 내에서 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 학문적 합리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문학자들도 서로 시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호학적으로 공간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현상학적으로 살펴본다. 현상학자는 기호학자의 접근을 경계하고 기호학자는 현상학자의 접근을 애매하다고 비판한다. 서로 일정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간은, 어떤 대표적인 도그마나 이즘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다양한 지층의 다양한 차원, 방향성을 좀 더 세심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공간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나 통합 디자인에 필요한 인문학적 가치를 그 층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인문학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정한 면적의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부를 공공에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할 몫이다. 다만 그 현상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열

마나 배타적이며 얼마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언표 하나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인문학은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사회적 담론으로 생성, 소통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인문학적 실천의 기본이다.

공간에 대한 당장의 대안을 내놓으라면 인문학은 무능하다. 건축과 도시설계에서 필요한 이즘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써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다 폭넓은 시야로 우리의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방법론과 시야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의 가치는 무한하다.

건축·도시공간 분야에서 인문학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간연구에서 인간이 유리되거나 물리적 공간 개선만이 중시되지 않는, 바람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IV.

공간정책을 위한 인문학의 제언

1. 인문학자와의 대화
2. 공간에 대한 인문학의 제언

(a u r

공간정책을 위한 인문학의 제언

1 인문학자와의 대화

연구진은 공간연구에 대한 인문학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평소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소장 인문학자 10명과의 개별 대담을 가진 후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공간정책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견해들을 일관성을 가지는 하나의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공간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각 인문학자들의 연구에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담에 참가한 인문학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강내희, 중앙대학교 영문과(영문학)

김백영, 광운대 교양학부(역사학)

김영순,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기호학)

박영옥, 고려대학교 철학과(철학)

백승국, 인하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문화학)

송도영,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인류학)

심혜련, 전북대학교 과학학과(철학)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철학)

박태호²⁶⁾, 서울산업대학교 기초교육학부(사회학)

임동근, 공간연구집단 대표(지리학)

개별 대담을 통해 각 인문학자들은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인문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연구주제가 인문학적 접근을 위해 필요한지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였다.

건축물의 보존과 역사적 기억이라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 여러 대담에서 제기되었다.

“이미 많이 훼손되었지만,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청계천이나 조선총독부 철거 시의 문제처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싫든 우리의 역사인데 기록하고 보존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흔적들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을 병행해야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식민지 시대에 대한 단죄라는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철거하는 사례는 역사적 맥락을 단절시키는 일이다.

단순히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시간의 축적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많다. 건축인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의 보존이나 연속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손쉽게 말살하고, 없는 곳에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맥락이나 단절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김백영)

건축물 설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 인문학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설계를 위한 사회담론을 찾는 것보다 사회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설계가 더 중요하다. 몰가치화 현상이 빈번하다. 우리 사회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건축물과 설계가 더 중요하다. 이에 인문학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김영순)

“건축학자들은 컨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은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은 대중들이 문화 및 공간의 질을 높여 주는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백승국)

26) 필명은 이진경임. 이하 이진경.

“건축은 삶의 문제인데, 건축가들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문제이다. 삶의 공간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오히려 건축가들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더니스트, 해체주의…… 모두 폼나는 조각품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한 것들이다. 삶이 없다. 거리라는 곳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공간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삶의 능력이 생기는 곳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거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삶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삶이 단조로워졌다. 따라서 다시 사회화시켜야 한다.

르 꼬르뷔제 같은 사람은 박애주의자의 계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더니즘이 수입되면서 건축 분야에서도 이념만 받아들였다. 모더니즘을 사회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그는 19세기 위생정책을 하는 박애주의자들의 행로를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그의 건축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휴머니스트이다. 푸코조차도 드레퓔스와의 대담을 보니 르 꼬르뷔제에 호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다.” (이진경)

“작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패턴화되어 몇 개의 패턴을 가지고 답습하는 것 같다. 어떤 건축가들은 데리다의 주름곡선 같은 것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 같다. 설계 실무면에서 보자면 설계 프로그램과 틀들이 있으나 디자인만 남고 역학적인 디자인은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박영옥)

“과연 오브제, 대상물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청계천의 공장에 이쁜 꽃병을 갖다 놓는다고 삶이 변할까? 표면적인 부분만 바꾼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압력과 권력, 사회 메커니즘을 바꾸지 않고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수고다.” (심혜련)

이러한 문제의식을 풀어나가는 인문학 자체의 위기, 인문학의 능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이 부족한 원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자의 위기와 인문학의 위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인문학자의 위기는 예전엔 인문학자를 높이 놓아두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대접을 했지만 신자유주의체제 이후 당장 학문적 생산력을 높이라고 체제로부터 압박을 당하다 보니 위기가 된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퇴출도 있고, 학위를 하고 와도 자리가 없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인문학 전공자들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문학 학문 자체의 위기가 있다. 인문학자들에게 과학적인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학하고 같은 보폭을 맞춰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 설명력이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 대한 이론적 비평, 이런

것들을 인문학자들이 해야 하는데 그 변화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설명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자의 위기는 비정규직 양산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인문학 자체의 위기는 학문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속도 차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없고, 반면에 인문학 쪽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며 발생하는 문제이다. 천편일률적인 학문체계를 가진 대학에서 학문체계 자체에 대한 학술적 고민을 하는 이들이 없다. 동경대학의 경우, 제1캠퍼스는 전통적인 학문체계를 따랐지만 제2캠퍼스는 새로운 학문체계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학문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앞선 사례라고 하겠다.”(강내희)

이질적 학문 간의 소통을 도모하던 해외사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다. 중앙정부 산하 도시연구소에서 주제를 주고 학자들에게 연구보고서를 발주하였다. 리피에즈와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여 ‘네트워크’라는 주제연구로 130여명 정도의 학자들을 모았다. 그들은 각 계에서 ‘네트워크’란 단어를 쓰는 직업군을 분류하고 그 용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데 모았다. 그 보고서는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줄 몰랐다”는 말로 시작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각 분야에서 너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각 계의 사람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만도 1년이 걸렸다고 한다. 비슷하게 우리가 공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인문학자들이 소통하는 데에도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임동근)

이러한 이질적 소통은 학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영역에만 머무를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의 특성상,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허구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동네 모임을 다녀 본 적이 있다. 한국의 도시에는 주민은 없다. 전문가들 세미나 하러 다니고, 주민은 조폭, 할머니, 아이들이 주다. 우리나라에서 마을 만들기가 안 되는 이유는 주민이 없어서이다. 집에서 애를 키우느라 동네 사람들과 소통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음식점, 상점, 무슨 지역, 동네도 커지면 조직이 나온다. 이것은 관찰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 담론이 필요하지만 회의적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생활세계의 전형이 그런 것이다. 대통령선거철에만 후보들이 시장 가서 꾸꾸미와 낙지를 들어올리는 그런 세계. 선거철에만 밥퍼에 가서 밥푸는 그런 현실. 이 존재론적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의 문제다.”(송도영)

대답에 참가한 인문학자들은 건축물과 공간의 문제, 소통의 문제, 현실인식의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간문제의 인문학적 접근의 시도에 대한 의미를 높게 평가하였다. 각 인문학자들은 추후의 연구주제의 다양성 확보를 전제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절에 게재하였다.

2 공간에 대한 인문학의 제언

개별대답과 집담회를 거쳐 인문학자들이 제안한 내용은 대체로 기존의 공간담론에 대한 재정비, 현대도시공간의 철학적 해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석의 관점으로는 역사적 맥락의 재고, 도시공간의 기호학적 접근, 건축담론의 철학적 개념 비판, 건축사조 일부의 철학적 재구성, 도시공간에 대한 속도의 문제, 공간에 대한 현상학적 사유, 공간에 대한 권력의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억과 공간: 콜로니얼 경성에서 포스트콜로니얼 서울로

(1) 공간의 파괴와 복원, 기억의 말소와 재생

1995년 문민정부(1993~1998)의 ‘역사 바로세우기’ 기획에 의해 서울 시내 두 곳의 일제시기의 대표적인 공간적 유산에 대한 매우 대조적인 방식의 변용이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경복궁의 구 조선총독부 청사건물을 철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공원 사적지를 성역화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건립한 것이다. 전자가 일제가 만든 건물을 흔적도 없이 파괴함으로써 그 자리에 남겨진 식민지기의 흔적을 지우고 과거 왕조시대의 공간을 복원하여 덧씌운 경우라면, 후자는 이미 공원화 과정에서 훼손되었던 일부 시설물들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켜 기념함으로써 오랫동안 망각되어 온 식민지기의 장소성을 되살려낸 경우이다. 이 대조적인 두 가지 변화를 각각 공간의 파괴를 통한 기억의 말소와 공간의 복원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들 두 공간이 경험한 역사의 전 과정에 비춰볼 때, 두 가지 방식 모두 균형잡힌 기억과 기념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구 조선총독부 청사는 1926년 완공 이래 1945년까지 약 20년간의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그 의

미가 규정되면서 파괴의 민족사적 정당성이 강변되었다. 이 공간이 1948년 8·15 정부수립 선포식을 비롯하여, 9·28 서울 수복, 4·19 혁명,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등등 20세기 후반기 40여년간 한국사의 정치적 격동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사실은 ‘일제의 상징물’이라는 지배적 기표에 묻히고 말았다. 해방 이후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의 현장으로서 그 건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더라면 이 건물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이 본격화되기에는 당시 철거에 대한 정권의 의지와 국민적 정서가 너무 강하고 확고했다. 과거 30여년의 군사독재 정권과의 단절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문민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 식민권력의 아성으로 탄생하여 해방 이후에도 줄곧 독재권력의 심장부로 활용되어 온 서울 도심부의 권위주의적 상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의례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서대문 독립공원은 이와는 대조적인 맥락에서 일제의 만행과 민족의 수난을 형상화한 역사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굳이 강우규 의사 가짜 유필 소동을 들지 않더라도, 이곳의 역사성에 대한 소개가 지나치게 일제 시기에 편중되어 있음은 현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 공간은 1908년 당시로는 ‘동양 최대·최신 규모’의 목조건물로 지어진 경성감옥(京城監獄)에서부터 출발하여²⁷⁾ 1912년에는 서대문감옥, 1923년에는 서대문형무소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경성형무소, 1950년에는 서울형무소,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 1967년에는 서울구치소로 명칭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 공간은 유관순, 윤봉길, 강우규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하여 1908~1945년간 연인원 약 50만명의 투옥자와 약 1,500명의 순국자들이 거쳐간 민족사적 수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4·19혁명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숭한 민주화운동가들의 고통이 묻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밖의 살인·강도 등의 각종 흉악범과 대형 경제사범·간첩·잡범 등 범법행위로 국가권력의 처벌을 경험한 각양각색의 개인사적 불행과 참회의 장소이기도 하다.

27) 경성감옥의 역사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구한말의 전옥서(典獄署)에서 비롯되어 1904년에는 경무청감옥서(警務廳監獄署)로 바뀌었다가 1908년 무악재로 이전하면서 최초의 대규모 근대적 감옥으로 신축되었다.

(2) 역사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정치

어떤 장소를 기념한다는 것, 특정 공간을 역사기념물로 만든다는 것이 그 공간에 담긴 모든 역사의 재현을 의미할 수는 없다. 기억은 언제나 선택적인 것이므로 기억과 망각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역사적 공간의 '복원'을 위해서는 언제나 특정 시기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문제를 선결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일제 시기에서 연원한 공간적 유산을 대하는 태도에는 지나치게 반일 민족주의적인 집합 정서에 휩싸여 상식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우리는 일제가 지배의 상징물로서, 당시 식민지수도 경성의 랜드마크로 건설한 건축물들 가운데 오늘날 엇갈린 운명을 겪은 건축물들을 다수 알고 있다. 1945년 일제 패망 직후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파괴된 조선신궁에서부터 1995년 해체된 조선총독부청사에 이르기까지 원형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장소성이 덧쓰여진 곳이 있는가 하면, 건립 당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늘날까지도 한국 건축사를 대표하는 근대건축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경성역, 조선은행, 경성부청 등의 건물들도 있다. 전자가 일제 침략의 상징물로서 집합적인 '복수의 정서'의 직격탄을 맞아 소멸된 경우라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탈색된 근대성과 문명의 상징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민적인 '기념의 정서'에 거슬리지 않고 편입된 경우라 할 것이다.

공간의 변용 양상에 있어 명백한 외형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상징건축의 사례에 비해 도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에 녹아들어 있는 공간적 유산들은 그 변화의 궤적을 판별하기가 더욱 난해하다. 가령 우리가 1960-1970년대 우리 고유의 도시공간으로 일종의 '원풍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밀집된 미로형 공간 속의 카오스적 공간 유산들은 상당 부분 일본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원형으로 하여 식민지 시기에 이식된 것이다. 다른 한편 군부독재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의 독버섯처럼 각지에 음성적으로 늘어난 집창촌을 비롯한 퇴폐적 유흥문화도 일제의 유곽에 그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많은 이에게 전자가 개발과정에서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추억의 정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그 불쾌한 역사성은 집단적으로 망각한 채 제한된 디스토피아 공간 속의 이국주의와 젠더 식민주의를 즐기는 '망각의 정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합기억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식민지기 공간적 유산에 대한 담론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맹목적 신성화, 자본과 개발에 대한 숭배, 젠더에 대한 억압과 식민화를 내면화하고 있다.

(3) 식민지기 공간적 유산의 탈식민적 변용의 유형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일제 시기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드러난 특징적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포스트-콜로니얼 변화과정을 거쳤는지 그 역사적 궤적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복수의 정서, 기념의 정서, 추억의 정서, 망각의 정서는 이들 공간들의 운명을 결정한 탈식민 대중적 정서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예시할 수 있다.

특히 일제하 경성에서 이주한 일본인들의 본거지였던 '남촌' 일대와 전통적인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북촌' 일대를 대비하여 각각의 상징공간과 일상공간에 남은 흔적들을 중심으로 그 변화의 역사적 계기와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탈식민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급격한 역사적 변화의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의 공간적 유산들이 어떤 측면에서 공격당하고 어떤 측면에서 살아남는지 그 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추적하여 이론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도시공간에서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과 미적 체험

세계의 모든 도시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도시에는 도시의 생성과 성립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과 그 이전에 전승되었던 설화와 신화 그리고 건축물에서 상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서사)로 도시들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정작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주자들의 이야기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도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도시의 정주자들과 방문자들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스토리를 체험하고 그 스토리를 통해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드는, 즉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도시를 '미적 체험' 모형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미적 체험 모형은 김영순(2000)이 시도한 기호학적 공간 해석 모형이다. 이 모형은 공간기호학에 기반을 두고 '이해', '소통', '체험'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공간기호학에서 바라보는 도시공간의 담론들을 살펴볼 수 있다. 공간기호학은 산업혁명과 아울러 성립된 근대 도시의 탄생과 함께 출발하였다. 공간기호학은 문화연구의 학문적 갈래인 문화기호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화기호학에서는 '공간'을 '도시와 농촌의 정주, 경관 및 구성요소들의 복합체'(Brunet, 1974: 123, Imazato, 2007: 2, 박여성, 2007: 185 재인용)로 간주해 왔다. 이 도시구성 요소의 복합체란 '기호학의 연구 대상인 '텍스트'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도시를 일종의 공간 텍스트로 놓고 보면, 이 텍스트는 문화기호학에서 의미하는 세 가지 문화 층위, 물질문화, 규범문화, 정신문화 층위에 관련을 짓고

있다. 물질문화 층위로 보면 건물, 가로, 광장 등의 공간을 따라 배열된 인공적인 피조물들의 행렬이 있으며, 규범문화 층위로 보면 도시 공간 속의 인간들의 행태와 제도 그리고 규범들이 있고, 정신문화 층위로 보면 도시가 인간의 삶을 조직하고 삶의 코드와 개념을 성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문화기호학에서 의미하는 도시는 일종의 텍스트인 셈인데, 일찍이 도시에 대해 ‘공간 속에서 시간을 읽는다’라고 언급했던 발터 벤야민의 ‘공간주의적 전환(spatial turn)’과 인식적 맥락을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폴랑 바르트도 도시가 의미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모종의 담론의 장소이고, 그 담론의 바탕은 언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는 도시민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도시에 대해 말한다(Barthes, 1985: 265, 김동윤, 2007: 162 재인용). 바르트에서도 도시를 인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언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이 언명은 도시가 기호학과 텍스트 서사학은 물론 인문학의 주요학문인 문사철의 영역으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벤야민과 바르트의 견해는 이 글에서 추구하려는 공간을 텍스트로 놓고 보는 동시에 공간에 스토리텔링 개념을 접목시키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도시는 의미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텍스트이며, 이를 집적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이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스토리와 연결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공간과 스토리텔링의 결합은 공간이 사회적 구조와 행위의 산물로 이해하는 시각과 지각과 행위들은 공간과 관련하여 역사적 변천에 종속하는 문화적 상상력에서 유도되었다는 시각에서 파생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공간기호학 분야에서 낯설지 않은 연구이다. 공간기호학은 공간이 사회적 과정으로 코드화되어 문화적 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공간 속의 물질적 층위만을 변화시키거나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층위와 정신층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기호학을 적용해 어떤 도시에서 ‘이야기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공간 텍스트를 서사 텍스트로 만드는 전략은 그 도시의 물질문화 층위들을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성장 중심으로 건설된 한국의 신도시에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서사장치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공간기호학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포함한다.

(1) 도시공간에 관한 기호학적 담론 지형도

- 그레마스, 에코, 바르트, 부르돈, 에드루트, 파우크, 라고플로스, 고트디너의 논의 정리 및 문제점 도출

(2) 공간과 스토리텔링 관계 규정

- 스토리텔링의 개념, 공간 스토리텔링의 조작적 정의

(3) 미적체험 모형의 설명

- 텍스트로서의 도시공간과 컨텍스트로서의 도시공간 환경 그리고 향유자로서의 인간 행위 분석

(4) Case Study: 특정도시의 공간 스토리텔링 분석

3) 현대건축의 담론에 나타난 공간개념의 비판적 검토

- 일상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창출을 위한 예비작업 -

장 보드리야르는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랜드의 효과는 그 자체가 가상적인 공간처럼 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디즈니랜드의 담 바깥의 공간, 즉 올랜도나 로스앤젤레스 시의 공간을 실제적인 공간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 디즈니랜드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공간이 가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마르크 오제(Marc Augé)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모든 공간이 가상화됨으로써 세상은 인간의 오감적 감응이 교류되는 장소의 상실, 즉 ‘비-장소’(non-lieu)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건축의 담론 또한 이러한 장소의 상실이 합리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공간론에 바탕을 둔다는 전제에서 장소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그러한 전제에서 현대건축의 담론은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담고 있는 해체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공간의 차원에서 번역하고 적용한다. 20세기 말 이후 현대건축의 키워드가 되어 버린 ‘주름’, ‘보이드’, ‘랜드스케이프’, ‘비선형성’, ‘다이어그램’ 등의 용어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이들 담론은 기능이나 기하학적인 공간만을 추구함으로써 근대적 합리주의가 일상으로부터 유리되어 비현실적이고도 편협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자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이러한 건축의 담론들이 새로운 공간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물론 이들의 담론만이 현대 건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해체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전 세계의 주요 공간 프로젝트를 접수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동대문운동장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들에서 담론은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 첫째, 이러한 건축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개념들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래의 철학적 개념들의 정의나 의도에 부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사실상 ‘보이드’(테리다의 ‘le vide’)나 매끈한 공간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들뢰즈) 등의 원래 맥락과 일정 정도 의미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그 차이가 추상적인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맥락으로 바뀐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검토는 이들 용어가 실제로 일상과 유리되지 않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현대건축의 이러한 공간 담론이 실제로 일상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방향이다.

이들 담론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소위 현대의 주도적인 작가들의 작업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오늘날 가장 거대한 공적 공간을 형성하는 프로젝트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다. (하버마스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르면 공공성은 생활세계(일상생활)에 굳건하게 바탕을 둘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오늘날 주도적인 건축의 담론이 일상을 가장한 비일상적인 공간, 또는 기념비적인 조형물이나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들의 변론으로 전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대중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간 담론에 대한 검토는 공적인 공간이나 일상적인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4) 건축에서 기능주의와 기계주의

알다시피 모더니즘 건축은 신고전주의나 역사주의 건축의 장식성을 비판하면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제로 요약되는 기능주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미스의 유명한 작품 판스워드 주택은 ‘그 안에서 살기 위한 기계’가 되길엔 너무 좁거나 너무 더웠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 모더니스트들이 매우 싫어했던, 너무나 장식적인 가우디의 건축물이 장식에 반하여 기능

의 일차성을 주장했던 미스의 건축물보다 오히려 더 기능적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것이 단지 하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기능주의를 표방했던 건축이 그다지 기능적이지 않았다는 역설! 이 역설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프루이트 이고의 경우였을 것이다. 기능주의 건축가협회의 전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았던 건축물이 실제로 거기 사는 데는 아주 반기능적이었다는 것, 그로 인해 급기야 폭파되고 말았다는 것은 건축에서 기능주의가 무엇인지, 아니 기능이란 대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건축의 역사는 기능주의자들의 문제를 기능주의 자체, 혹은 기능주의 건축에서의 기능 개념에서 찾기보다는 그들이 장식성을 비판하고 포기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모더니즘 비판으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고전적 장식, 혹은 다른 종류의 장식성의 회복에서 출구를 찾았다. 이것이 모더니즘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건축은 그 안에서 살기 위한 기계인데,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그 기계의 빈약한 장식성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을 ‘그 안에서 살기 위한 기계’로 정의했으면서도 ‘빛 속에 자태를 드러낸 매스들의 교묘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유희’라고 보았던 르 코르뷔지에의 관점, 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 정의와 관련된다. 그것은 건축을 삶 속에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시각적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건축의 문제는 언제나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의 문제가 되고 만다. 모더니즘에서 기능주의란 미스 말에 따르면 구조적 기능을 가시화하는 방법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구조적 형태나 고전적 형태를 가시화하는 방법, 달리 말해 장식의 방법의 일종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기능주의란 모더니즘이 고전 건축의 장식적 요소 대신 기하학적 장식의 원리였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기계로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어질 건축물이 어떤 기계인가가 매번 새로 질문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미학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일관되게 던지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혁명 속에서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문제, 혹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로서 건축의 문제를 사유했다. 그것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숙청되면서 많은 부분이 망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야말로 건축물을 하나의 기계로 다루고자 했던 거의 유일한 시도였다고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와 대비하여 구성주의의 입장을 ‘기계주의’로 재정의하며, 장식적 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대비하여 건축 자체를 사유

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의 문제로 다시 부각시킬 수 있다. 물론 구성주의 건축은 필립 존슨이 주도했던 뉴욕현대미술관의 해체주의 전시회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때 아닌 시간에 되살아났지만, 그것은 구성주의 건축의 이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형태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미학으로서, 장식적 건축의 한 유형으로서 변형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선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아마도 구성주의에 대한 베르나르 추미의 비판적 논평이나 콜하스의 지지적 논평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문화환경 속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재구성

- 공간기호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인문학의 사회적 활용성과 유용성에 공헌할 수 있는 질적 방법론의 근거를 제공하는 공간기호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여러 학제적 접근방법을 아우르는 도시공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도시는 '인간이 만든 문명적 산물의 공간적 응집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심미적 발전상태(문명론적 문화), 지적·예술적 활동(예술, 교양론적 문화), 특정한 생활방식(생활양식론적 문화), 공유된 의미체계(의미체계론적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 문화의 개념이 도시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환경 속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재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이는 도시공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 변천, 소멸해 가는 사회공간(social space)이자 사람들의 습결과 욕망, 정서, 감수성이 담긴 일상공간(life space)으로서 도시를 재해석하고, 도시공간의 문화 분석을 통해 풍요롭고 다양한 삶의 질을 추구하며, 의미를 가진 복합적인 장으로서 도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공간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는 지리학, 건축학, 조경학, 관광학, 예술사 등의 여러 학문영역에서 상이한 이론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도시공간에 대한 학제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시공간의 문화적·심미적·상징적 차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도시공간을 시각적으로 포착된 형태(form)로 접근했던 전통적 방식이 20세기 후반에 들어 의미(meaning)와 재현(representation)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도시공간이 보여주는 외적인 형태의 질서와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도시공간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도시를 외적인 형태인 동시에 의미체계이자 재현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도시공간을 물질적 실체뿐만 아니라 재현된 이미지, 더 나아가 텍스트(text)로 간주함으로써 도시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도시공간을 문학이나 영화 텍스트처럼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쓰이고’, ‘읽히는’ 일종의 총체적인 텍스트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이라는 융합(ensemble) 텍스트를 소통적 텍스트, 미학적 텍스트 그리고 가치론적 텍스트로 접근함으로써 ‘문화환경 속 도시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징적 공간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공간은 소통적(communicative) 텍스트이다. 즉, 도시는 자연, 건축물 등과 같은 다양한 기호를 통하여 도시의 의미를 생성하고 도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적 텍스트로 규정할 수 있다. 도시공간을 소통적 텍스트로 규정하는 이유는 도시공간이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실행하는 기호학적 주체인 동시에 지각(perception)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소통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구조 등을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으로 진단하여 인본적 가치가 내재하는 소통이 원활한 도시공간의 창조적 재구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공간은 미학적(esthetic) 텍스트이다. 즉, 통시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은 과거의 흔적과 기억 등을 생태역사문화자원의 범주 속에 내포하고 있는 미학적 텍스트로 규정할 수 있다. 미학적 텍스트로서 도시공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재해석을 실행하여, 도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범주화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공간은 가치론적(valuable) 텍스트이다. 즉, 공시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수렴(convergence)하는 가치론적 텍스트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가치론적인 시각은 도시공간이 물질적으로 전유되고 사용되는 과정 그 자체에 근거를 둔다. 즉, 도시를 문화적 생산과 물질적 실천 사이의 관계성을 내포하는 가치론적 공간 텍스트로 간주하는 것이다.

6) 도시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보자

도시공간은 단지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공간은 아니다. 도시공간은 문화적 기억과 흔적이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은 도시공간은 지나간 역사를 겹겹이 쌓아놓고 있다. 도시 인상학자는 마치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연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지구의 역사를 밝히듯이, 도시에 겹겹이 쌓인 층을 연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흔적이다. 그리고 이 흔적을 탐험하는 도시공간의 새로운 주체는 산보자다. 산보자는 대도시라는 공간이 등장하고 새롭게 조명을 받는 새로운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산보자는 군중과 함께 존재한다. 산보자는 스스로 군중임과 동시에 군중과 거리두기를 하는 주체다. 군중 속에 속함으로서 스스로 보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군중 속에서 벗어나 보기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을 분석할 때, 흔적을 읽는 산보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공간을 흔적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 흔적의 공간을 탐험하는 산보자라는 주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도시이론이다. 벤야민은 도시공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사상가이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 인상학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을 분석하듯이, 그는 자신이 체험한 도시의 인상을 분석했다. 그에게 도시는 흔적과 기억 그리고 망각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다큐멘터리이다.

벤야민이 문화적 다큐멘터리로서의 도시를 분석하는 틀은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체험, 그리고 이것이 남기는 방식과 그것을 읽는 주체로 형성된다. 그것이 바로 놀이와 예술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도시공간, 그리고 흔적과 산보자라는 주체다. 먼저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보면, 그는 도시공간을 단지 일상적 공간으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공간, 더 나아가 새로운 예술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본다. 이는 도시미학과 일상미학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분석이다. 또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이 이전의 공간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갖는지를 체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벤야민의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을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흔적(Spur)'이다. 벤야민에게 흔적은 아우라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는 흔적을 '흔적을 남긴 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의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반대로 아우라는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있는 것의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흔적은 일상성이 있는 도시와 연결이 되고, 아우라는 예술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물과 지각방식 그리고 기억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벤야민은 흔적 속에서는 주체인 우리가 사물을

소유하게 되며, 아우라에서는 사물이 주체인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벤야민의 흔적에 대한 논의를 현대 우리 도시공간과 연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이 흔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흔적을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나는 흔적과 그것에 대한 '기억'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 '강제적인 망각'의 방식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공간에서 흔적과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억의 강제적 주입이다. 곳곳에 생기는 기념관과 기념비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흔적과 장소성과 괴리된 이런 건물들과 조형물들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기억을 폭압적인 방식으로 주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적인 흔적의 공간의 강제적 소멸'과 '강제적 기억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현주소다. 따라서 이러한 흔적을 다루는 이러한 방식들은 산보자의 산보의 권리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산보자의 산보에 대한 권리가 배제된 공간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간에서 산보자는 매우 중요한 주체 유형이다. 벤야민은 산보자와 수집가를 비교해서 산보자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벤야민의 산보자 개념을 군중 그리고 수집가와 비교 분석하고, 이 산보자 개념을 어떻게 지금 우리의 대도시 공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전: 풍경

- 존재 시학적 현상으로서의 풍경 연구 -

건축 없이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노마드(nomad)와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디지털시대와 트랜스휴먼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행어가 되었을지라도 인간은 무한정 떠돌 수만은 없으며 어디든지 편재하는 존재자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은 어디엔가 정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은 무엇인가를 지음(building)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인간의 근본적 존재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철학이 단순히 삶의 허공을 떠도는 기호들의 유희가 아니라면, 또 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따라서 언젠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철학의 결코 방관할 수 없는 긴박한 주제는 삶은 어디에 무엇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즉, 철학은 공간, 건축이라는 문제를 삶의 관련 속에서 성찰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공간의

문제를 성찰하며 건축의 문제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삶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는 철학에서 분리되어 다루어졌으며, 건축은 철학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상학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잃어버렸던 연관 관계를 회미하게나마 회복하며 다시 철학적 성찰의 장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학자는 하이데거이다. 그는 후설의 과학 비판을 계승하지만 후설의 인식론적 현상학의 한계를 벗어나 실존론적-존재론적 현상학의 차원으로 진입한다.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삶, 공간, 건축이 서로 연관성을 회복하는 근본적 차원으로 철학적 논의의 방향을 심화하는 데 그 어떤 철학자에서도 목격할 수 없는 지대한 기여를 한다. 그리고 이는 이제 인간 삶의 생생한 거주의 현장에 현상학적 탐구가 스며드는 계기가 된다. 소위 건축현상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건축현상학은 고대에서부터 현대를 거쳐 포스트모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공간, 건축이 이루어낸 인간 삶의 흔적들을 현상학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적어도 거주와 건축의 문제를 통하여 인류의 문화사를 재해석하는 기회를 터놓는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석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거주, 공간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시 구상하여 삶의 거주지로 형성해 낼 것인가 하는 미래적 과업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공간에 관한 탐구는 기존의 공간의 논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공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데카르트 이후 결코 의심된 적이 없던 연장성의 문제가 보다 근원적인 공간의 문제에서는 거론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공간은 이미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사물이 위치한다고 하는 논의 방식은 이제 극복되는 것이다. 초기 '존재와 시간'에서 발아하는 이러한 공간론은 후기에 들어서 숙성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특히 초기와 중기를 거치며 무르익는 그의 언어철학이 인식론적 공간론에 대한 비판과 함류함과 동시에 시적 언어를 언어의 본질로 통찰하면서 그의 현상학은 이제 시적 언어를 길잡이로 삼아 시학적 공간론에 이르는 것이다. 즉, 사방의 어울림이라는 다소 신비적인 그의 공간론은 과학적 공간과 후설의 지각공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공간의 시학적 구조를 통해 공간, 인간, 풍경, 건축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현장을 지켜온 건축물과 도시를 논의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른바 건축과 풍경의 현상학 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풍경 현상학은 풍경을 주관적 해석의 산물이나 기호학적 텍스트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존재의 일어남으로 보며 모든 것에 앞서는 의미의 출현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언어를 언어로 존중하는 시적 태도에서 구체화된다. 결국 풍경은 존재론적 시학적 현상이다. 이는 적어도 건축에 건축의 텍스트놀이가 일어나는 공간은 기호의 놀이가 일어나는 백지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오히려 건축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전에 이미 풍경으로부터 의미가 출현하여 건축은 이와 관련성 아래 기호를 짓는 작업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풍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시학적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는 하이데거의 사방이론을 길잡이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발전시키면 풍경의 시학적 요소들이 갖고 있는 내용과 관계를 매우 세밀하고 풍부하게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풍경의 유형을 구분해 내는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마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의미가 스며 있는 풍경은 인간의 실존이 펼쳐지는 근원적 차원이며 인간이 풍경 안에 거주할 때 무엇인가를 짓고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인간 이전에 펼쳐져 있는 자연적 풍경과 거기서 거주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들의 집합인 마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앞서 논의한 바와 따르면 마을은 풍경의 의미를 머금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자연적 풍경과 마을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미가 스며 있는 자연적 풍경을 머금은 마을은 자연적 풍경과 연속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속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역할이 두드러진다. 즉, 거주 혹은 거주를 위한 건축은 바로 마을과 풍경의 연속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거주를 위한 건축을 통해 자연적 풍경의 의미를 건축물로 초점화하여 자연적 풍경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자연적 풍경과 마을의 연속적 관계를 단순히 자연적 풍경의 의미가 마을의 성격에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적 풍경이 인간의 건축이란 시적 거주행위를 통해 그 성격이나 분위기를 이어가는 방식을 술츠가 논의한 바와 같이 가시화, 상징화, 그리고 보완으로 밝혀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마을의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해 여러 실례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다시 건축을 통해 삶의 현장에 스며들 수 있다. 특히 풍경과 도시 건축의 현상학은 관광산업의 영역으로 넘어들어 매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관광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관광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도시여행이다. 따라서 관광과 도시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이 오늘날 인간의 사는 방식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관광과 인간의 삶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관광에서 매우 각광받는 두 도시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유형은 라스베가스과 두바이이며, 또 다른 유형은 로마와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이다. 이러한 비교는 어떤 유형의 도시가 관광도시로서 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는 관광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8) 공간과 권력: 푸코의 ‘또 다른 공간들’

“당신의 지식의 고고학에 지리학의 ‘자리’가 있습니까?” 1976년 지리학자 이브 라코스트(Yves Lacoste)가 푸코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다. “Questions à Michel Foucault sur la géographie²⁸⁾”, 대답은 짜늘하게 돌아왔다. “어떤 학문이 재미있어서, 중요해서, 혹은 그 역사가 뭔가 설명하는 것이 있어 보여서 그 학문을 공부하는 것, 그건 제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답의 말미에 푸코는 대담자와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 “제가 다루는 것들의 핵심에 지리학이 있어야 겠군요.” 이후 실제로 베강(Béguin)과 카바(Cabat)와 함께 영토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1977년-1978년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 한 제목은 ‘치안, 영토, 인구’였다.

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을 출간한다.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푸코는 공간모델 판옵티콘(panoptisme)을 설명한다. 어디나 볼 수 있는 자리이면서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비대칭적인 ‘위치’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감옥, 학교, 병원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판옵티콘에 따라 사람을 개별로 나누고 격리하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구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푸코가 생각하기에 육체, 다중성, 운동, 욕망, 힘 등에 작용하는 권력의 관계가 만든 생산물로서의 ‘개인’이 위치하는 장이다. 이를 설명하면서 많은 ‘공간적’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런 이유로 지리학자 및 여러 공간 관련 학자들이 푸코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푸코의 ‘공간’은 지리학자들의 ‘공간’과는 빗겨간다.

‘공간’, ‘공간화’, ‘공간적’ 등등 ‘공간’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푸코는 공간적 개념을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을 언급할 때는 모호하게 넘어가곤 했다. 예를 들어 푸코의 얘기가 유럽에만 통용되는 지리적으로 특수한 경우인가? 아니면 공간을 뛰어넘는 일반론인가? “당신은 지리학적 개

28) Hérodote, n° 1, janvier-mars 1976, p.71.

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에 푸코는 “내가 지리학적 개념을 빌려온 것이라 생각합니까? 지리학이 그 개념을 빌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되묻는다. 자신의 전공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친숙함에서 나오는 집요한 질문들에 푸코는 날선 대답을 내놓는다. “제가 공간적 개념에 집착한다는 비난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고리타분하군요. 제가 공간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과 지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푸코의 긴장된 반응은 지리학자, 혹은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지식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며, 학문 내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공간을 아는가?”와 같은 질문은 지식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폭로하는 푸코에게 “당신은 지금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리학자의 ‘위치’를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들의 오해는 라코스트가 지리학적 지식들의 축적과정 또한 지배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지리적 공간에 대한 탐구가 당신의 주제와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풀린다. 푸코는 대답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치, 분배, 절단, 영토 통제, 영역의 구성과 같은 일종의 정치지리학을 구성하는 전술과 전략들, 이런 점에서 내 관심사들이 당신의 방법들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제도화된 ‘공간’, 공간이라는 개념과 실제 공간 사이의 불일치에서 출발한 이 대답은 푸코가 ‘공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1960년대 중반부터 푸코는 문학비평을 통해 ‘바깥’, ‘위치’, ‘두께’와 같은 공간 은유들을 사용하였다. (La langage de l'espace», Critique, n° 203, avril 1964, pp.378-382). 서구에서 시간적인 ‘기원’을 찾아가는 반복적인 말들로 이루어진 글쓰기라는 움직임과 대비하여 공간을 수직과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언어’와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선’, 올리에(Ollier)의 작품을 평하면서 푸코는 모든 움직임이 전개되고 시선이 도시와 공간을 훑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와 ‘공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목한다. 그에게 공간적 은유는 ‘권력의 선분들’이 제도화되는 한 양상으로서의 ‘공간화’를 보여주는 개념이었으며, 그 뒤에는 항상 권력들이 작동하는 ‘절차’와 ‘전략’들이 중요해진다. ‘영토’는 특정 형태의 권력이 통제하는 사법적-정치적인 것이고, ‘지평’ 혹은 ‘영역’은 행정적·군사적·경제적인 절차에 따른 개념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권력의 장에 있는) 시선은 중립적이지 않다.” (Ibid., p.380)라는 말이 “공간은 중립적이지 않다”로 확장한다.

비중립적인 공간과 권력에 대한 논의는 『사회를 보호해야한다』, 『치안, 인구, 영토』, 『생정치의 탄생』, 등과 같은 1970년대 후반의 강의와 대답들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는 ‘사회의사’라 칭하는 사회의 규율권력들, 노동의 통제, 인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비평적 해석을 일관되게 볼 수 있다.

즉, 푸코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들’을 볼 수는 있지만 푸코의 ‘공간’ 이야기는 없다. 유일한 푸코의 ‘공간’은 1966년 12월 7일 강의에서 언급된 ‘헤테로토피’이며, 1967년 튀니지 강의, 『또 다른 공간들』에서 이와 관련된 거친 형태의 강의록의 주제가 된다. 그러나 푸코는 이 강의록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토피’와는 다른 또 다른 공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대담한’ 메모와도 같은 이 질문은 1970년대 후반 ‘자기로부터의 통치’라는 새로운 주체화를 고민하는 시기에 재등장하기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감시와 처벌’에서 ‘통치성’의 작동방식을 비평하며 그 공간적인 은유들이 펼쳐졌다. 그렇다면 ‘자기로부터의 통치’라는 또 다른 다이어그램은 어떤 공간적 전략들을 갖고 있는가? 지식으로 제도화된 (권력의) 공간들을 극복하는 또 다른 (권력의) 공간이 있는가? “우리는 중립적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 푸코가 꿈꾸는 “비중립적 공간의 조성방식, 조성전략, 조성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뒤이어 왔으며, 푸코의 ‘헤테로토피’는 그가 죽기 전까지도 진행 중이었던 사고였다. 1967년 강의록은 부족한 답이었으며, 1984년 봄 죽기 직전야 17년 전의 강의록이었던 『또 다른 공간들』의 공개를 허락한다.

‘헤테로토피’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영미권의 문화분석에서 유행했던 반면, 푸코가 유토피와 헤테로토피를 대비하며 ‘통치’의 차원에서 고민한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전략들’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공간 분석에서 거론되는 ‘헤테로토피’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헤테로토피는 단순히 다양성이 발현되는 공간도 아니고, 사용자의 자발성에 기인한 공간 질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화된 유토피 공간들’인 ‘반공간들’, ‘부모의 침대’와 같은 규범과 같은 장소 없는 공간이라 말하는 ‘언어’와 ‘공간’을 함께 탄생시키는 ‘권력의 선분들’, 규율과 치안이라 불리는 권력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통치성’ 모델 ‘생정치’, 이곳의 밖에서 자신의 ‘실제’ 공간을 만들어 가는 ‘유토피적 육체가 아닌 헤테로토피적 육체’의 생성이 헤테로토피가 된다. ‘공간과 권력’이라는 푸코의 화두를 연결하여 우리가 사는 공간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a u r i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건축과 도시공간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기존의 건축적 논의만으로는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사회적 영역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정책의 목표, 수단, 절차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각각이 철학적인 검토를 거쳐 사회공동체의 합의와 일종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일부 집단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비뚤어진 사회상의 반영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기초를 조성하는 작업은 진지한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지한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인문학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문학 현황을 살펴보고 건축,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인문학적 접근도 검토하였다. 인문학에 대해서는 인문학자의 위기, 인문학 자체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개별 인문학자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학문체계의 구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공 또는 국가 차원의 학문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총체적인 예산지원뿐 아니라 개별 국책연구소가 인문학적 연구에 대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학술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문적 토양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건축,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인문학적 접근의 경우 개별적인 철학적 개념을 연구의 소재로 차용한 경우가 주로 많았으며, 실질적인 인문학적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인문학과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0명의 인문학자들과 개별 대담 및 집담회를 가졌으며, 이들이 제안한 연구주제를 수록하였다. 연구제안의 주제를 살펴보면, 기억과 공간에 대한 검토, 공간 속에서의 이야기 생산에 대한 내용, 건축적 담론에서 나타난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비평, 현대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적 비평, 공간에 대한 철학적 개념의 적용 및 검토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주제들은 범위와 분야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과 인문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첫걸음 중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들은 개별 연구주제의 의의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의 기초조성을 위한 후속 작업들의 초석이라는 가치를 가질 것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2008년 4회에 걸쳐 인문학 포럼을 주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인문학자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학자들 간의 소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008년 포럼이 모두 개최되면 각 포럼의 발제문들을 보완·출판하여, 연구소와 포럼에 참여한 학자들의 노력의 성과물을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부록 1 참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2

이 연구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폭넓은 문헌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의 현황조사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가장 근원적인 한계이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인문학자를 접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문학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학자들과의 대담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그 대표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과제들의 경우 제안서 수준에 불과하므로,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여러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의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의 것으로 남겨두어야만 했다. 이는 건축, 도시공간에 대한 전문가들과 인문학자들 간의 구체적인 토의를 끌어내지 못한 한계와도 연결된다. 이질적인 관점의 상호접점을 모색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는 후속작업으로 미루어야만 했다.

이 연구진은 제시된 주제들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잠재적인 연구 분야를 발굴해 나가고자 하며, 연구주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의 후속연구에 수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의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천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며, 실질적인 학제 간 토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다.

연구결과물들은 건축가, 도시설계가 등 관련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토의의장을 마련하여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공간담론의 성숙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인문학자가 연구참여를 유도하고, 건축과 도시공간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문학적 접근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연구주제를 생산해 공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책적·사회문화적 자산의 확보에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 인문학적 연구역량의 강화에도 학술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AURI 인문학포럼 계획안

· 부록2

인문학관련 건축 · 도시공간분야 연구목록(2007년)

(a u r i

참고문헌

1. 단행본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연감, 2006 건축·도시 연구 동향”, 2007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마이클 헤이스,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Spacetime, 2003

박경하 외, “인문연구의 발달, 가치와 경제적 효과성”, 2002

하라켄야, “디자인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2003

박태호,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0

강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7

에드워드 윌슨, “지식의 대통합, 통섭”, 최재천 역, 1998

김우창, “국제공항: 심미적 이성의 탐구”, 솔, 1992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1975

Christopher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2. 보고서

이광희 외, 인문사회분야 연구활동 현황조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한형조 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김동노 외,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정책: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03, 2002.

염재호, 최호철, 한국인문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과제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
총서 2002-07, 2002

박덕규 외, 국내외 인문학 지원체제 비교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48,
2002

박경하 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형성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49, 2002.

김여수 외, 인문학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언,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50, 2002

3. 저널

김우창, “도시의 미학, 공간의 미학” , 비평, 생각의 나무, 2007, 겨울

신승환, “통합학문의 꿈, 통섭의 의미와 한계” , 비평, 생각의 나무, 2007, 겨울

이정만, “건축의 인문학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 건축 2007년 6월

박한규, “건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건축 vol.48, n.12, 2004

summary

Humanistic Research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y(I)

Oh, Sung Hoon
Seong, Eun Young

There has been almost no critical discussion on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enough to secure various discourses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ies. But for the humanistic viewpoint, it is not possible to set the goal, methods, and procedure of spatial policies. What should we do? How can we do it? What is the available tools palette? All these questions have to be certificated by certain compromise across various communities through each philosophical deliberation. Without the process, a policy can be just a tool to fulfill the partial interest of some group, which means the whole society lacks fairness,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the humanist research for spatial policy is a basic step to found a sound policy fram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in a republic.

This research looks over the general state of humanist studies in Korea statistically, and study up on humanist approaches in domestic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ields. There are divided arguments on the crisis of humanists and the crisis of humanist study itself, but mainly focus on several topic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humanist research capability, the modification of academic system, and public research support system. In that point, a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joint research program can be regarded as a effective way of facilitation of humanist studies.

If limited in our literature survey's range, each philosophical concept is merely adopted for an analytical tool in the humanist approaches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ield in Korea. There

is almost no humanist speculations in earnest, which means that a significant participation of authentic humanist researchers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ields is needed.

In this research process, ten humanists are interviewed and with them a common seminar was held to prepare a regular event for public communication on humanist spatial studies. According to the seminar's debates, eight research topics are derived. The topics are as follow; the speculation on memory and space, story-production in space, criticism on humanist approaches in architectural discourses, humanist criticism on modern urban space, and application and review of philosophical concepts to space. Although these topics have clear limits in research range and depth, they has significant meaning as first step to a integrated field between humanist study and architecture or urban design.

Beyond this research, AURI is to prepare regular humanist forum in 2008, which can be a academic arena for humanist and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 After the forum, a publication of the outcomes is planned to broaden the integrated ideas on spatial considerations.

keyword : Humanistic research, Architectural and Urban Discours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부록 1.

AURI 인문학포럼 계획안

1. 제1회 AURI 인문학 포럼 : 공간의 인문학적 재해석

1) 개요

- 일 시 : 08. 3. 28(금), 14 : 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주 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진행순서

(1) 개 회 (14:00 ~ 14:10)

- 개회사 : 온영태(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2) 기조발제 (14:10 ~ 14:30)

- 강내희(중앙대학교 교수)

(3) 주제발표 (14:30 ~ 16:05)

① 제1주제

- 현대건축의 담론에 나타난 공간개념의 비판적 검토(박영욱)

② 제2주제

- 파괴와 복원의 정치학: 식민지 경험과 역사적 장소의 재구성(김백영)

③ 제3주제

- 문화환경 속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재구성(백승국)

④ 제4주제

- Design 서울, text, 그리고 풍경(이종관)

(4) 패널토론 및 전체토론 (16:05 ~ 17:00)

- 좌 장 / 김우창(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패 널 / 이진경, 심혜련, 임동근, 김영순

(5) 폐 회 (17:00)

2. 제2회 AURI 인문학 포럼 : 공간의 인문학적 재해석

1) 개요

- 일 시 : 08. 6. 27(금), 14 : 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주 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진행순서

(1) 개 회 (14:00 ~ 14:10)

- 개회사 : 운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2) 주제발표 (14:30 ~ 16:05)

① 제1주제

- 건축에서 기능주의와 기계주의(이진경)

② 제2주제

- 도시 공간에서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과 미적 체험(김영순)

③ 제3주제

-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보자(심혜련)

④ 제4주제

- 공간과 권력: 푸코의 '또 다른 공간들' (임동근)

(3) 토론 (16:05 ~ 17:00)

- 좌 장 / 강내희(중앙대학교 교수)
- 패 널 / 박영욱, 이종관, 김백영, 백승국, 배형민

(4) 폐 회 (17:00)

3. 제3회 AURI 인문학 포럼 : 공간의 인문학적 재해석

1) 개요

- 일 시 : 08. 11. 7(금), 14 : 00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궁전홀
- 주 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진행순서

(1) 개 회 (14:00 ~ 14:10)

- 개회사 : 운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2) 주제발표 (14:10 ~ 15:25)

① 제1주제

- 동물행태학 VS. 성찰적 인간 : 도시공간 전개방식의 사례(송도영)

② 제2주제

- 기억 공간의 재구축: 히로시마 평화공원, 개발과 평화이념 사이에서(권혁태)

③ 제3주제

- 영상물의 외부공간, 그 인식과 실제(오성훈)

(3) 휴식 (15:25 ~ 15:40)

(4) 토론 (15:40 ~ 17:30)

- 좌장 / 강내희(중앙대학교 교수)
- 패널 / 이진경, 박소현, 박영욱 외

(5) 폐회 (17:30)

부록 2.

인문학 관련 건축·도시공간 분야 연구목록 (2007년)

분류	서명	저자	발행처	주제어
기호	현대모형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경향에 관한 연구	이창윤, 오인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커뮤니케이션 개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조명디자인
기호	가계집합에 따른 대전·논산지역 예하자 가옥의 공간구조 분석	김영애	대한건축학회	가계집합, 가옥 공간구조, 사당, 시랑채, 안채, 정사
기호	건축 유형학 이론의 개념적 배경	권준범	대한건축학회	건축 유형학, 형태론, 구조주의, 인지 지각력
기호	건축의 가치체계의 분화와 의미형상에 관한 연구	변대중, 정정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언어, 의미구조, 의미체계, 가치구조, 가치체계, 가치요소
기호	기호론적 관점에 기초한 홀로코스킨건축의 상징성 분석	이승연, 이상훈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홀로코스킨, 다니엘 리베스킨트, 상징성, 기호학, 의미작용
기호	랜드스케이프건축개념의 재유형화에 관한 연구	왕림근, 김기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현대건축, 재유형화, 랜드스케이프 개념
기호	램프(Ramp)의 공간적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신영, 이형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램프, 경사, 수직성, 건축적 실험
기호	루이스 비라킨의 건축구성 요소를 활용한 주택 계획	홍석호, 김광배	대한건축학회	루이스 비라킨, 벽, 빛, 색, 불투
기호	루이스 칸 건축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노수진, 김경연 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루이스 칸, 천장, 형태구성
기호	루이스칸미술관건축의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김낙중, 정태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룸, 구축, 빛과 공간
기호	빌버우구겐하임미술관을 통한 현대건축물의 아이콘화 의견 분석	조희영, 김정근	대한건축학회	빌버우구겐하임 미술관, 프랭크게리, 아이콘화
기호	새로운 물의 구조적 개념에 따른 공간의 관계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종세, 김주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물, 관계성, 구조적 & 비구조적
기호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호텔디자인의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김정아, 김억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호텔, 디자인, 패러다임, 감성
기호	신·구조소의 관계 유형 분석에 의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그 특성	노정은, 박찬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신?구 요소, 관계유형, 디자인 전략, 재생, 컨버전 디자인
기호	연극 무대 공간디자인에 대한 수사학적 연구	안주영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무대디자인, 연극커뮤니케이션, 수사학, 기호학
기호	한국 전통 공간 디자인 텍스트의 지시 작용 해석에 관한 연구	박강애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전통공간디자인, 텍스트, 컨텍스트, 텍스트 해석학, 지시작용, 자기화
기호	현대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非)가시적 힘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	이형근, 김계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시성, 무의미, 역설, 비생성, 표현
기호	현대 공간 디자인의 매체성에 관한 연구	신홍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매체, 탈장계, 공공, 포피
기호	현대 상업 건축의 카치적 외형에 대한 연구	박정란, 이흥규 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카치, 소비심리, 상업건축, 기호
기호	현대 건축 공간에 나타난 하이퍼 텍스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성미, 심은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이론, 사이버공간
기호	현대 공간 디자인에서 빛의 지각방식과 공간 경험 효과에 관한 연구	홍유란, 권영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빛, 지각방식, 공간경험
기호	Manhattan 상업 건축의 포피 다양화 경향에 관한 분석	양한우, 이정수 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포피, 상업건축물, 인터페이스, 표현
미학	디지털 건축에서 유기적 형태의 구축특성에 관한 연구	김동준, 정재욱	대한건축학회	디지털 건축, 유기적 특성원리, 형태구조 시스템, 형태도출 기법
미학	신·구조소의 관계유형 분석에 의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그 특성	노정은, 박찬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신?구 요소, 관계유형, 디자인 전략, 재생, 컨버전 디자인
미학	에드워드 호퍼 회화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종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에드워드 호퍼, 회화, 빛, 기하학, 공간
미학	유기론적 해석을 통한 유비쿼터스 구조와 조직체계 연구	박희형, 조택연	대한건축학회	유비쿼터스 공간, 유기적 구조, 조직체계, 네트워크 구조
미학	라슬로 모호아니주의 비저현적인 공간 표현의 이념에 관한 연구	이란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비저현적인 공간적 표현, 구성주의, 생물학적 기능, 공간지각
미학	렘 쿨하스와 키즈오 세자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권광민, 김중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렘 쿨하스, 키즈오 세자마, 프로그램 조직, 공간구성방법
미학	비물관 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송어람, 김민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현상학, 비물관, 체험, 진시
미학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통한 욕망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안은희, 이정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욕망, 라캉, 욕망유형, 욕망구조, 부정성, 환상, 특이성

분류	서명	저자	발행처	주제어
미학	Mies van der Rohe 건축에서 기둥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연구	이병욱, 김용승, 박영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미스 반 데어 로헤, 기둥, 표면
미학	1947년 프랑스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에 관한 연구	강상훈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다색채 장식, 성당건축, 프랑스 건축, 19세기, 제2제정
미학	21세기 업무공간의 장식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한지연, 신홍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장식, 업무공간, 색, 빛, 비물질성
미학	건축적 자발성의 變異性의 研究	전영진, 박경수의	대한건축학회	빛배치, 내림마루, 이산곡률, 곡선, 곡률근사선, 표준 곡률근사선
미학	데이터시장을 활용한 현대 실내디자인 표현에 관한 연구	이정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데이터시장, 초현실주의
미학	리얼로호이나나주의 "일반기초요소론"에 관한 연구	이민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기초요소론, 디자인, 경험비판론, 구성주의
미학	미르세이유 위니테다비타시움(Unité d'Habitation)의 공간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정진원, 김은희	대한건축학회	주거, 모더니, 단위주거유형, 조직
미학	문화적 양태고리를 통한 도시의 장소성 발견에 관한 연구/이상의 시를 통한 통의동 장소성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이승연, 구영민	대한건축학회	전근대도시, 장소성, 이상, 알레고리, 벤아민
미학	반도즈버르그의 색면 조형 실험에 관한 연구	박영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반 도즈버르그, 더 스테일, 색면, 역동적 건축, 4차원성
미학	오스주의 건축에서의 조형 구축적 특성/반도즈버르그의 1923년 개인주택과 예술가주택을 중심으로	박영경,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오스주의 건축, 더 스테일, 반 도즈버르그, 오스화, 반-구축
미학	일제강점기 경복궁 전각의 해설과 이진	박성진, 우동선	대한건축학회	궁궐건축, 경복궁, 유문당, 응무당, 지신당
미학	차경이론을 통해 보편드스케이프건축과 전통 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	이영미, 천득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통건축, 린드스케이프 건축, 자연도입방법, 차경, 내부의 풍경화
미학	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나는 인터페이스의 표현특성 연구	이동영, 임은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인터페이스, 비물질성, 하이브리드 작용, 경험공간
미학	현대 공공공간과 공공미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다니엘리베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한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공공미술, 예술과 공간의 경험, 맥락적 사고, 장소 특수성, 상호 작용
미학	현대 식음공간 실내디자인의 초현실주의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박민식, 김민영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식음공간, 초현실주의, 오토마티즘, 데페이즈망
미학	현대 실내디자인의 하이브리드 미학적 표현기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은지, 이정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열린 해석체, 복합적 코드, 탈코드화, 상호텍스트성
미학	현대 일본 실내 디자인의 와비-사비지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이길호, 이정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단순성, 소박함, 일본 미의식, 한시성, 미완성, 불완전
미학	현대 건축에서 구조체계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석원, 임영환	대한건축학회	디테일, 구조체계
미학	현대 건축의 장소적 진정성(Place Authenticity) 구현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경	대한건축학회	진정성, 일성성, 기억의 지속, 디지털이성, 미학, 문화적 비내몰리
언어	『日月』과 『廣場』에서 보는 韓城韓國의 都市의 建築空間	배준호, 시계루 외 와카야마, 시계루 외	대한건축학회	문학, 건축용어, 의식공간, 전후사회
언어	건축화 도구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김정애, 김동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건축화, 현대사회, 다이어그램, 통합, 합리
언어	관찰적 프로토타입 분석법을 이용한 국내·외 설계 사고 과정 및 행위 특성 비교·분석	김용일	대한건축학회	관찰적 프로토타입 분석, 인지행위
언어	디지털공간이 현실공간의 '생성(becom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재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디지털, 생성, 가상공간, 현실공간, 형태, 공간, 시간
언어	르코르뷔지에의 의무한 상징비율관 연구	이민식	대한건축학회	르 코르뷔지에, 박물관, 미술관, 무한상징비율관, 근대적 공간성
언어	알바알토의 천창 유형 및 진화에 관한 연구	김언준	대한건축학회	알바 알토, 천창, 에드, 크리스탈, 반사광
언어	언어를 매개체로 한 공간디자인의 교육 사례	임은영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메타언어, 대상언어, 시, 공간디자인
언어	유추적 사고에 의한 디자인 문제 해결의 유형	최은희, 최문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연상된 단어, 스케치, 유추, 디자인 문제해결
언어	전시 공간에 표현되어진 건축(建築)적 개념의 유형 고찰	최희량, 차상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움직임, 유동적 공간, 신체, 제(體)적각, 전시공간
언어	패러메타기법을 활용한 공간 계획 자원에 관한 연구	김인용, 전한중	대한건축학회	공간계획, 초기디자인, 패러메타, CAAD, BIM, 건축설계
언어	현대 디지털 전시공간에 나타난 뉴미디어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혜, 김문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현대디자인, 뉴미디어
언어	형태 생성과 연관된 공간디자인의 형태 어휘 추출	최은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형의 요소, 공간적 관계, 형태어휘

분류	서명	저자	발행처	주제어
철학	계획 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성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계획이론, 협력적 계획이론, 가버니스, 사회자본
철학	사회주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김홍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소련 도시계획, 도시주의, 비도시주의, 신행도시, 구성주의
철학	'물려받은것(傳承)' 에비탕을 둔 현대건축에 관한 연구	심길재, 이동언	대한건축학회	전통, 해체주의, 물려받는 것, 지엔니 비티모
철학	건축 개념에서 기억스키마(Memory-Schema)적용에 관한 연구	오신옥, 조영수	대한건축학회	기억, 이미지, 기억스키마
철학	건축적 산책 관점에서 바라본 리모슈퍼텍트의 공간 분석	전인목	대한건축학회	건축적 산책, 르 꼬르뷔지에, 라 로슈, 공간분석
철학	김수근 건축의 강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김강원, 한지애	대한건축학회	김성, 김수근, 한국 현대 건축, 김강
철학	디지털 네트워크와 공간적 유통성을 바탕으로 한신제-기계-공간 조직체에 관한 연구	김종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적 유통성, 신제, 기계, 조직체
철학	라울로보호아-나주의 비제한적인 공간 표현의 이념에 관한 연구	이만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비제한적인 공간적 표현, 구성주의, 생물학적 기능, 공간지각
철학	리테일 샵 실내공간에 나타난 김성디자인의 성향(性向)에 관한 연구	배신희, 김문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김성디자인, 리테일 샵, 실내디자인, 주얼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철학	메타볼리즘의 개념을 적용한 메가스트럭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최영철구영인	대한건축학회	메타볼리즘, 메가스트럭처, 위아어, 펠란
철학	미디어아트에 나타난 서공간개념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원, 임강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서공간, 미디어 아트, 가상공간, 상호작용
철학	미술관에서 공간구조가 관람 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재훈	대한건축학회	미술관, 추적조사, 관람행동, 관람빈도, 공간구조, 공간구문론
철학	비호환성과 하이퍼의 크로노토프에 관한 비교 연구	윤숙희, 정진원	대한건축학회	크로노토프, 장르, 잉여시간, 잠재성, 타자, 일상, 유희성, 변주, 별자리
철학	비호환성의 크로노토프에 기초한 건축 디자인 연구	윤숙희, 정진원	대한건축학회	크로노토프, 행동, 발화, 대화, 서공간, 환류, 서울, 타자, 다성성, 변주
철학	박물관 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송아람, 김문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현상학, 박물관, 체험, 전시
철학	베를린 평야모니 콘서트홀에 나타난 한스시몬의 건축적 특성 연구	주홍범, 김홍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스 시몬, 베를린 평야모니 콘서트홀, 유기적 기능주의
철학	브랜드스케이프건축에 있어 사용자의 체험과 인지에 관한 연구	이종진, 이영수	대한건축학회	브랜드스케이프, 브랜드스케이프 건축, 체험마케팅
철학	사주명리학을 활용한 거주자 평가 방법 분석에 관한 연구	최성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사주, 감성공학, 적성검사, 거주자맞춤형, Squ
철학	사회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 내에서 자연관의 차이에 따른 도시계획의 비교에 관한 연구	조성훈, 정자용	대한건축학회	사회주의, 자연관, 친환경, 칼 마르크스
철학	상업공간의 브랜드 이미지와 표현 강령(表現綱領)에 관한 연구	강소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리테일 샵, 프라다, 브랜드 이미지, 표현강령
철학	시각정보의 통시성을 통한 건축 조형 해석에 관한 연구	문정필, 김기환	대한건축학회	시각정보, 손군의 통시성, 현상의 통시성, 흐름의 통시성, 건축조형
철학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통한 욕망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인은희, 이정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욕망, 리얼, 욕망유형, 욕망구조, 부정성, 현상, 특이성
철학	아도르노의 미메시스概念이 갖는 建築化의 可能性	박용원, 이동언	대한건축학회	주술적 행위, 미메시스, 옹화, 맥락, 탈주술
철학	알버말트와 안토니오가우디의 교회건축 및 디자인 비교 연구	양세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지역주의 디자인, 교회건축 및 디자인, 민족적 낭만주의, 복유형 기능주의, 까말루나 고딕양식, 빛의 활용
철학	유기론적 해석을 통한 유비쿼터스구조와 조직 체계 연구	박희형, 조택연	대한건축학회	유비쿼터스 공간, 유기적 구조, 조직체계, 네트워크 구조, 신일구조
철학	일본 枯山水庭園의 구성 기법에 관한 연구	정욱한, 이훈	대한건축학회	방장, 고신수, 신종사원, 용인사
철학	자연환경 전서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강호성, 신홍영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생태학적 디자인, 자연환경 전서관, 지속가능성
철학	장이모우 영화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윤나라, 심은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영화, 상징성, 공간연출
철학	전통사상을 통한 공간구성방법 도출에 관한 연구	이성수	대한건축학회	전통사상, 유교, 유교, 조선시대건축, 공간구성방법
철학	조선준기 영·초급사립 누정건축의 유교적 토착화	윤일이	대한건축학회	조선시대, 서림, 유교, 건축관, 누정, 상류주택, 토착화
철학	주거공간에 나타난 김성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윤정미, 류호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김성디자인, 주거 공간, 공간의 체험
철학	점점퇴조의 '생성속은되기' 개념을 통한 현대 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	유정호, 조한	대한건축학회	틀퍼즈, 현대건축, 생성, 경계, 추상기계

분류	서 명	저자	발행처	주제어
철학	크리스티아노폴리스(Christianopolis)의 배치계획에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	대한건축학회	크리스티아노폴리스, 기독교적 이상성, 차등적 배치와 균등 배치, 중심지형 배치, 종교적 상징성, 악능 및 기능별 분리
철학	포스트모더니즘 현대미술과 기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병훈, 김진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포스트모더니즘, 현대미술, 기구디자인, 의디자인, 엠피스
철학	프랑크게리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후기미니멀리즘적 특성의 적용과 표현에 관한 연구	이영화, 이상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반형태, 물성, 프로세스
철학	프랭크로이드라이트建築의 프래그머티즘의 意義에 관한 연구	신유림, 임석재	대한건축학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래그머티즘, 미국, 실용성
철학	피터마리노의 패시브랜즈스투어 공간디자인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심은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피터 마리노, 패시브 스토어, 브랜드 아이덴티티, 사넬, 투이비통
철학	하버마스의 합리성으로 본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소용적 특성 연구	이승희, 임석재	대한건축학회	하버마스, 의사소통이론, 근대건축, 합리성, 구조주의, 헤르만 헤르프버거
철학	한국 정보문화와 현대적 죽음의 의미고찰을 통한 장묘시설 계획안	한송이, 이강업	대한건축학회	장묘 문화, 종교, 역사, 납골당, 화장장
철학	현대 건축의 피의 디지털미디어화 상황에 관한 연구	장재원, 김남웅	대한건축학회	외피, 정보기술,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 유비쿼터스
철학	현대 실내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유리재료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김은정, 홍관신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공간디자인, 유리, 투명성, 비 물질화, 상징적 표현
철학	현대 실내 공간에 나타난 플드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김태신, 김문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현대 실내공간, 주름, 접기
철학	현대 주거 건축에서 나타나는 敎定型的 공간구상과 多義的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장춘익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탈정형, 주거건축, 다의적 표현
철학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영향과 현상학적 건축 설계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광배	대한건축학회	현상학, 건축 현상학, 디자인 방법론, 지각, 감각
철학	호름의 동시성을 통한 건축 조형 해석에 관한 연구	문장필, 김기환	대한건축학회	호름의 동시성, 동시성, 시각정보, 건축조형
철학	C.R. 맥킨토시건축의 사상적 배경과 생태적 접근 관계에 관한 연구	윤영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맥킨토시, 근대건축, 이르누보, 생태적, 자연적, 비네콜러
철학	Diller + Scofidio의 작업에 나타나는 상황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철, 이광희	대한건축학회	상황주의, 스킵스들의 사회, 아피지, 들타 + 스크라피오, 방치, 관조, 통찰자로서론, 뉴비틀론
철학	DONALD JUDD 作品에 나타난 非關係的 構成의 建築으로서의 轉移에 관한 연구	이은정, 김형우	대한건축학회	비관계적 구성, 전이
철학	MetaphoricProcess에 의한 공간의 다층적 의미 효과에 관한 연구	박희영, 김수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라이프스타일, 자아정체성, 현대성, 메타포 과정, 감성적 공간
철학	NOMAD방식에 따른 주거 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	소재민, 김형우	대한건축학회	근대 주거건축, 전통성, 노메디즘

(auri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el 031-478-9600
fax 031-478-9609
www.auri.re.kr